



한국 · 아세안

우리는 친구

ASEAN and Korea,
We are
FRIENDS

2009년 3월 서울에서 ‘한-아세안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은 한-아세안 간 무역과 투자 촉진은 물론 문화 관광 및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March, 2009 Seoul in Korea, the ASEAN-Korea Centre was established. This Centre will contribute to promoting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ASEAN and Korea, and also be a venue to expand exchange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cultural exchanges, tourism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CEO Summit, 2009. 6. 제주, 이명박 대통령 기조연설 중]

[Lee Myung-bak,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ccasion of the ASEAN-Korea Commemorative Summit in June 2009, Jeju, Korea]

목차

인사말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인사말

아세안이란

02 아세안이란

03 한국과 아세안 관계

아세안 회원국 국가별 소개

06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08 캄보디아 Cambodia

10 인도네시아 Indonesia

12 라오스 Lao PDR

14 말레이시아 Malaysia

16 미얀마 Myanmar

18 필리핀 Philippines

20 싱가포르 Singapore

22 태국 Thailand

24 베트남 Vietnam

.....

26 용어정리

28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사

30 아세안 음식 문화

32 아세안과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34 아세안 퀴즈

36 한-아세안센터

한국 • 아세안 우리는 친구 • 발행일 2011. 8. • 발행인 조영재 • 발행처  ASEAN-KOREA CENTRE

ISBN 978-89-963628-5-2

본 책자는 청소년들에게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한-아세안센터에서 기획 제작한 출판물(비매품)입니다.

문의 02-2287-1115~6 • info@aseankorea.org • www.aseankorea.org

원고 집필 (가나다 순)

김윤희 동화작가/아세안 국별 소개
김이재 경인교육대학 교수/아세안 음식문화
조흥국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과 아세안의 교류사

감수 (한국 가나다 순/대사관 알파벳 순)

강영순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교수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
박장식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동남아지역원 원장
심두보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윤대영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인문학연구교수
이요한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교수
조영희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최경희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홍석준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Embassy of Brunei Darussalam
Royal Embassy of Cambodia
Embass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Embassy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Embassy of Malaysia
Embassy of the Union of Myanmar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Embassy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Royal Thai Embassy
Embass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한국 · 아세안 우리는 친구〉의 출간을 위하여
원고 집필 및 감수에 도움을 주신 분들(기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자료 및 문헌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경제협력개발기구 stats.oecd.org
ASEAN 사무국 www.asean.org
아세안가이드 (국별 관광정보)/한-아세안센터
동남아시아 사회와 문화/정영규/울국출판사
중학교 사회 1/교학사
고등학교 세계사/교학사
동남아학 총서/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조흥국/소나무
창덕궁/문화재청
한-아세안센터 www.aseankorea.or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유네스코 세계 유산 센터 whc.unesco.org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창덕궁 www.cdg.go.kr
브루나이 www.jpm.gov.bn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www.indonesiaseoul.org/indexkorea
인도네시아 www.indonesia.go.id
한국 라오스 친선협회 www.korlaos.or.k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www.malaysia.or.kr
주한 필리핀 대사관 www.philembassy-seoul.com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www.mfa.gov.sg/seoul
싱가포르 www.gov.sg
싱가포르관광청 서울사무소 www.visitsingapore.or.kr
주한 태국 대사관 www.thaiembassy.or.kr
태국 www.thaigov.go.th
태국 관광청 www.visitthailand.or.kr
베트남 www.chinhphu.vn

인사말

청소년 여러분,

한-아세안센터는 청소년 여러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아세안 우리는 친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책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 회원국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한국과 동남아시아 교류의 역사 및 아세안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등을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진 및 통계자료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약 200여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동아시아 지역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중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이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이루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동티모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는 인도, 서남아시아, 유럽 지역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서로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2009년 3월, 마침내 양 지역 간의 경제 및 사회 문화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 정부간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제주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한-아세안간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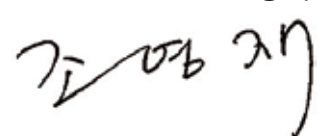
경제 분야에 있어,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지역으로 2010년 한국과 아세안간 교역액은 973억불에 달합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세안은 한국의 원유, 가스, 석탄, 팜 오일, 주석 등 에너지, 광물자원 및 원자재의 주요 공급원이며 2009년부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전면 발효됨에 따라 양 지역 간 교역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도 활발하지요. 특히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대중음악 등을 즐기는 한류 열풍의 진원지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동남아 출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로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 또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간의 상호 방문객은 연간 4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렇듯,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가까운 친구이자 협력동반자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본 책자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고유한 전통문화와 발전하는 현대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세안을 체험해보면 어떨까요? 한국과 아세안이 지리적인 위치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가까운 이웃인지 배우고, 서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책자를 만나는 청소년 여러분 모두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힘차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길 바라며, 아세안 10개국으로의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조영재



아세안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아세안)은 역내 평화, 번영, 발전을 목표로 지역 국가 간 협력을 위해 1967년 창설되었다. 현재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5억 9천 6백만 명이고 총 GDP는 1조 8천 5백억 불(2010)이다. 교역규모는 2조 1천 2백억 불(2010년)에 달하며 고도성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성공적인 지역협력체로 발전하였다.

아세안은 1997년에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을 발표하고, 아세안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또한 아세안 창설 40주년을 맞은 2007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헌장(ASEAN Charter)'이 채택되었다. 2015년까지 단일시장과 생산기반을 통한 경제공동체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세안은 2008년 12월, 아세안헌장 발효와 함께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ASEAN+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과 더불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아세안 지역 외의 주요국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주도하여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안+3란?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매년 아세안정상회의(ASEAN Summit)를 개최하고 있다. 1997년 창설 30주년을 맞은 아세안은 아세안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를 초청하여 'ASEAN+3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이 세 나라는 동아시아의 협력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가까운 이웃국가들이다. 매년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도 함께 열리고 있다.

숫자로 본 아세안

아세안 창립 **1967. 8. 8.**

아세안 10개 회원국 총인구 **5억 9천 6백만 명**

총면적 **4, 435, 830 km²**

GDP(2010) **1조 8천 5백억 불**

총 교역량(2010) **2조 1천억 2백억 불**



한국과 아세안 관계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

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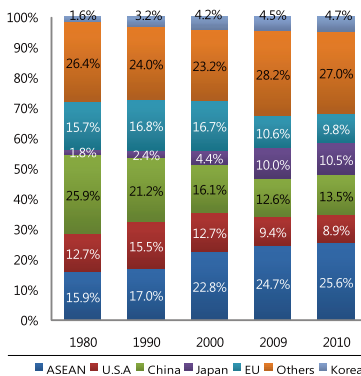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2004년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으며 안보·경제·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에 있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2009년 3월, 양 지역 간의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 <한-아세안센터>를 설립하였다. 이후 양 지역은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같은 해 6월, 제주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양 지역 정상들이 함께 모여 한-아세안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며 미래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신아시아 외교' 구상과 더불어 2010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하여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양측간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발전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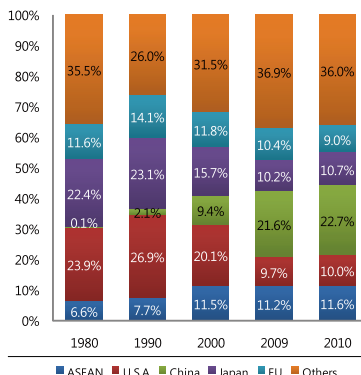
- 1989 대화관계 수립 (Dialogue Partnership)
- 1997 제1차ASEAN+3 정상회의(ASEAN+3 Summit)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 2004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선언(11월, 라오스, 비엔티안)
- 2005 한-아세안 행동계획 채택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2007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7월)
- 2007 한-아세안센터설립 양해각서 서명 (11월, 싱가포르)
- 2009 한-아세안센터 창립(3월, 서울)
-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6월, 제주)
- 2009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발효(5월), 투자협정 발효 (9월)
- 2010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0월, 베트남, 하노이)
-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10월, 베트남, 하노이)

아세안과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동향

ASEAN의 주요 무역파트너



한국의 주요 무역파트너



출처 : 국제통화기금 무역통계연감 (IMF DOTS)
주 : EU는 1980년에는 EEC, 1990과 2000년은 EU(15), 2009, 2010년은 EU(27)를 의미

아세안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경제 분야에 있어,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지역이며 한국은 아세안의 5대 교역 상대국이다. 2010년 한-아세안간 교역액은 973억불(수출: 532억불, 수입: 441억불)에 이른다. 또한, 2009년부터는 한-아세안 FTA가 전면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양자 간 교역규모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이후 1년 차(2007.6 ~ 2008.5) 대비 발효 4년 차(2010.6. ~ 2011.5.)에 우리나라의 對 아세안 교역량은 약 60.8% 증가한 1,068억 불 수준에 이르며, 수출은 68.3%, 수입은 52.2%가 증가하였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세안은 한국의 원유, 가스, 석탄, 팜 오일, 주석 등 에너지, 광물자원 및 원자재의 주요 공급원이다. 아세안은 2015년까지 단일 시장과 생산기지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류 협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 및 언론인 교류 등 인적교류, 공연예술축제, 전시회개최 등 문화교류 등을 통하여 언어와 풍습이 다른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아름다운 천연 관광자원이 많은 아세안 국가로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제 아세안은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한국과 아세안 국가 상호 방문객은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연간 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가수 '비'의 베트남 공연



태국의 한류 패스트푸드 광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한국과 아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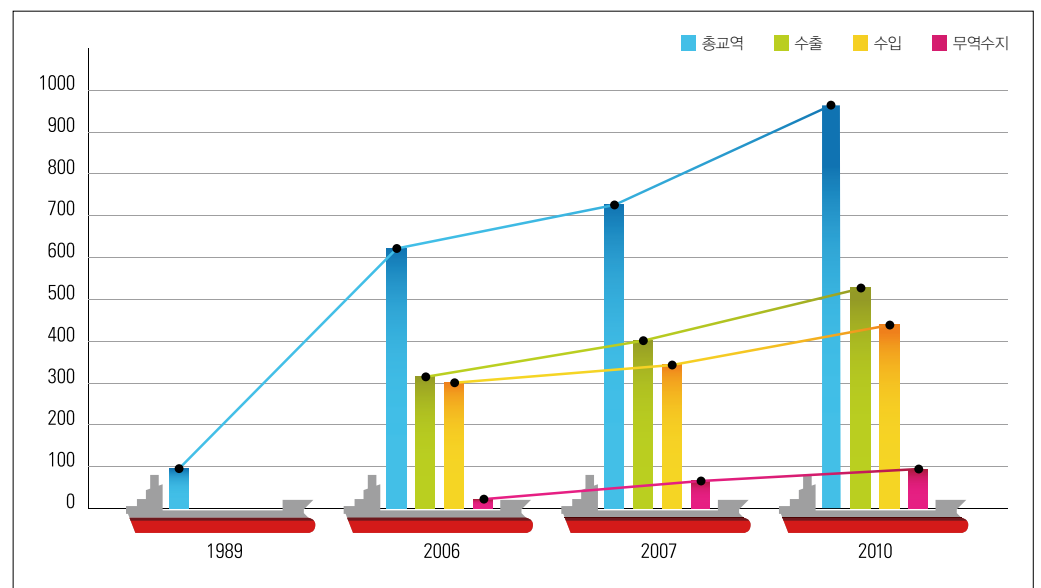
최근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135만 명(2010년)을 넘어섰고 이중 약 20%가 동남아국가 출신으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이웃으로 쉽게 동남아국가 출신의 국민들을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동남아 음식과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의 드라마, 대중음악, 패션 등을 즐기는 한류가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 문화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바, 바야흐로 한국과 아세안은 문화적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가까운 친구로서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대 아세안 공적개발원조 현황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한국은 지난 1995년 세계은행으로부터 받은 개발차관을 마지막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이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13년 만인 2009년 11월 원조 선진국 클럽인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한국정부는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 대상지역인 아세안의 경제통합 가속화와 아세안 내의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한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AI)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2003-2007년 500만 불 지원에 이어서 2008-2012년 및 2013-2017년간 각 500만 불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AI의 주요 기여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과 아세안간 무역규모 동향

한국과 아세안간 총 교역액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당시 82억불에서 2010년 973억불로 늘어나 지난 20년간 약12배 증가하였다.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숫자로 본 한-아세안 관계

한국과 아세안간 무역규모 **973억 불**

- 수출 532억불, 수입 441억불(2010년)
-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지역 (중국에 이어 2위)
- 한국은 아세안의 3대 교역국

한국의 아세안국가 건설 수주액(2010년 누계) **717억 불**

-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건설 수주시장
- 건설 수주는 중동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과 아세안간 상호방문객 수(2010년) **400만 명**

아세안 회원국 국가별 소개

ASEAN MEMBER STATES

● 아세안 주요 현황

국가별	면적 천km ²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ASEAN	4,436	596.3	1,852.5	3,107
 Brunei Darussalam	6(경기도 절반)	0.4	13.0	31,239
 Cambodia	181(한국의 약 1.8배)	14.3	11.6	814
 Indonesia	1,860(한반도의 9배)	234.4	706.7	3,015
 Lao PDR	237(한반도의 1.1배)	6.4	6.3	984
 Malaysia	330(한반도의 1.5배)	28.3	238.0	8,423
 Myanmar	677(한반도의 3배)	61.2	43.0	702
 Philippines	300(한반도의 1.3배)	94.0	188.7	2,007
 Singapore	0.7(서울시 605.5km ²)	5.2	222.7	43,117
 Thailand	513(한반도의 2.3배)	63.9	318.9	4,992
 Viet Nam	331(한반도의 1.5배)	88.3	103.6	1,174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

● 대한민국 주요 현황

	면적 천km ²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The Republic of Korea	100	49	1,007.1	20,591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국가통계포털(KOSIS)

BRUNEI Darussalam

아시아의 황금 왕국,

브루나이

이 나라가 커
“안녕하세요?”



브루나이의 정식국가명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Brunei Darussalam)’은 ‘평화의 집’이라는 뜻으로, 경기도의 절반만한 국토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수출로 1인당 GDP 31,239 달러(2010년 기준)를 자랑하는 부국이다. 북쪽은 남중국해를 접해 있으며 보르네오섬 북서부에 위치한 브루나이는 국토의 대부분이 열대림으로 덮여있어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현대적인 시설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브루나이는 독실한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나라이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브루나이와 한국의 공식 외교관계는 1984년 브루나이의 독립과 동시에 수립되었다. 브루나이는 UN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온 전통적 우방국이다. 한국과 브루나이의 연간 교역액은 16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브루나이에 자동차, IT, 견직물 등을 수출하며(1억불) 원유, 천연가스 등을 수입한다(15억불).

2. 역사

6~7세기 무렵 말레이 부족국가들 형성했으며 1405년에 브루나이 이슬람 왕국을 창설하였다. 이후 15세기~16세기 무렵 보르네오섬 북반부 전체 및 필리핀 일부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의 침략을 받았다. 1847년 영국과의 우호조약 체결로 소국으로 전락했으며 1888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1932년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1959년 자치정부 헌법을 제정하였다. 1968년 제 29대 국왕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즉위 후 1984년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였고 같은 해 ASEAN(동남아국가연합)에 가입하였다.

3. 문화적 특성

브루나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말레이인으로 관습, 신앙, 역사 등이 말레이 반도에 사는 말레이인들과 매우 비슷하다. 아닷(Adat)으로 불리는 관습법이 브루나이에서 모든 전례를 주도하며 특히 왕실이나 국가 전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부 조직에 아닷 이스티사닷(Adat Istimadat)이라는 기관이 있어 전례를 보존하고 절차나 의복, 문장 등에 관해 조언도 해준다. 브루나이는 독특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 나라는 실제 1인당 GDP 31,239 달러에 이르는 만큼 생활수준이 높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체 인구인 40만 명과 비슷한 40만대이다. 가구당 평균 보유대수가 5대에 이른다.

4. 축제

- 브루나이 국왕탄신일(Birthday of Sultan of Brunei): 현 브루나이의 국왕인 하지 하사날 볼키아(Haji Hassanal Bolkiah)의 탄신일인 7월 15일은 브루나이 최고의 축제날이다. 한 달 전인 6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술을 금지하는 이슬람의 율법상 흥청망청하는 유흥은 없지만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 마울루드 나비 무함마드(Maulud Nabi Muhammad): 3월~4월 찾아오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탄신일. 전 세계 이슬람교도들에게 각별한 이 날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과 사원, 학교 등에서 약 한 달 동안 축하행사를 벌인다.
- 하리 라야 아이딜피트리(Hari Raya Aidilfitri): 브루나이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 최대의 축제로, 금식하는 달인 라마단이 끝나는 날이자 이슬람 달력의 열번째 달인 사왈의 첫째 날. 하리 라야 아이딜피트리 때는 평소 공개하지 않던 왕궁을 3일 동안 개방하고, 불꽃놀이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

5. 음식

현지 요리로 유명한 것은 구운 생선과 매콤한 망고 소스를 곁들인 요리 암부얏(Ambuyat)과 나시 르막(Nasi Lemak), 비프 렌당(Beef Rendang) 등이 있다.

- 암부얏(Ambuyat): 사고야자 나무줄기에서 추출한 녹말가루를 반죽한 음식으로, 길고 뾰족한 대나무 포크에 찍어 새



브루나이 국기

가운데의 날개는 정의와 평온, 번영, 평화를 상징하고 초승달은 이슬람을 상징한다. 양손은 정부의 복지, 평화, 번영 추구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며 황색은 국왕, 황색과 흑색은 협정에 서명한 왕족을 상징한다.

브루나이 기초정보

국명: 브루나이 다루살람(Brunei Darussalam)
위치: 보르네오 섬 서북연안에 위치하며 동부 말레이시아의 사라왁주에 의해 양분
면적: 5,765km² (경기도의 약 1/2)
인구: 417,000명 (2010년)
수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Bandar Seri Begawan)
정부형태: 이슬람 절대세습왕정제
국왕: 하사날 볼키아(Sultan Haji Hassanal Bolkiah)
언어: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및 기타 토속어도 사용
주요민족: 말레이계 67%, 중국계 15%, 토착인종 6%, 기타 12%
종교: 이슬람교(국교)이나 기타 종교 인정
화폐단위: 브루나이 달러(Brunei Dollar)

주요지역

무아라(MUARA) 지역
 브루나이 북동쪽 지역으로 수도인 반다르세리베가완이 있으며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제루동 파크 놀이공원, 세계 최대의 수상 마을인 캄pong 아에르 등 주변에 볼거리가 많다. 또한 코발트빛 바다로 이름난 브루나이담계 아름다운 해변들이 많이 펼쳐져 있다.

투통(TUTONG) 지역
 브루나이에서 가장 큰 호수인 타섹 므림분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바닷가라는 뜻을 가진 스리 끄낭안 해변이 있으며 투통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인 타무 투통 캄pong 스라바가 있고 송아지 바스 해양공원이 위치한 곳이다.

벨라이트(BELAIT) 지역
 브루나이의 서쪽 지역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지적 역할을 하는 곳인 쿠알라 벨라이트 타운을 비롯하여 열대우림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송아이 리앙 휴양공원과 맑고 깨끗한 늪이 있는 루아간 할락 휴양공원 등이 있다.

템부롱(TEMBURONG) 지역
 바투 아모이 산리보호 지역에 위치한 울루 템부롱 자연공원은 '아시아의 허파'라 불릴만큼 보르네오 섬의 자랑거리이다. 무려 5만 헥타르 정도의 크기로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관광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콤한 과일 소스와 함께 먹는다. 구운 생선과 젓갈 등이 곁들여진다. 브루나이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자 현지인들이 가장 즐겨먹는 요리이기도 하다.

- **나시 르막(Nasi Lemak):** 말레이식 아침 식사로 흰 쌀밥에 칠리 소스와 멸치 볶음, 삶은 달걀, 오이 등을 바나나 잎에 싸서 내는 일품 요리다. 브루나이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 **비프 렌당(Beef Rendang):** 렌당은 코코넛 소스에 양파, 마늘, 고추 등을 넣어 맵게 볶은 요리로 인도네시아가 기원이다. 소고기뿐 아니라 닭, 오리 등 재료를 달리할 수 있으며 잭 푸르트 같은 과일을 넣어 만들기도 한다.

6.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왕실의 권한이 절대적인 브루나이에서는 정부의 고급관리들의 기용에 있어 부미푸트라 정책(말레이계 우대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말레이계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브루나이의 사회 복지는 부국답게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내국인에게 모두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자에게 연금을 지원한다. 또 빈민층과 미망인에게 재정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 교육

전체 무상 교육이 원칙이다. 만 5세에 취학하여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5년 과정을 마치면 6th form centre 또는 간호 보조학교 직업 기술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에 가려면 대학 예비학교(2~3년)를 수료 후 GCE-A Level에 합격해야 한다.

8. 경제

브루나이는 아시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브루나이 경제는 국내 총생산의 약 80%, 총수출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 가스 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배당금, 세금, 로열티, 임대료 등의 수입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극도의 석유 의존형 경제 체제를 지니고 있다. 1997년 이래 저유가 추세에 따른 석유 수입이 격감하여 국고 손실이 컸으나 최근의 유가 상승 및 아시아 경기의 회복 추세에 따라 석유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비전 2035'라는 장기 국가 비전을 설정하여 더욱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 복지 및 생활환경의 향상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연 7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로 매년 6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류, 자동차, 공산품, 식료품 등이며 주요 교역대상국은 일본,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예절 Tip

- 다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건드리는 것은 브루나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 가운데 하나다.
-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음식을 건넬 때는 항상 오른손을 써야 한다.
- 슬리퍼 차림이나 소매 없는 옷, 짧은 치마를 입고 사원이나 왕궁, 박물관에 입장할 수 없다.
- 이슬람교도인 브루나이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거나 마시게 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의 경우 음주는 가정집이나 허가된 특정 장소(음식점 안 폐쇄된 지정석 등)에서 즐길 수 있다. 모든 공공장소에서 음주는 금지되어있다.

C A M B O D I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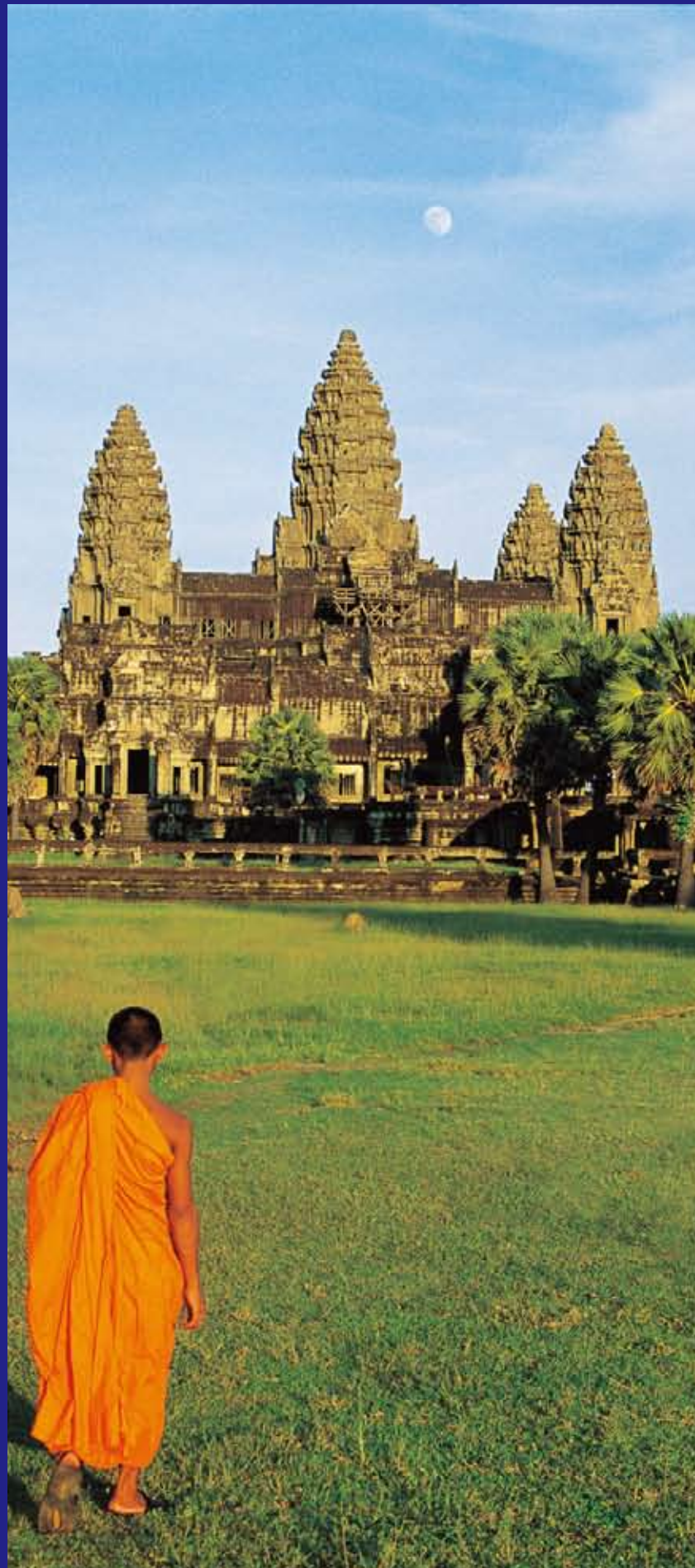
양코르와트의 나라,

캄보디아



쑤어 쑤데이?
“안녕하세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양코르와트(Angkor Wat), 바로 크메르왕국의 찬란한 유적이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이 양코르 와트를 보기 위해 캄보디아를 찾는다. 9세기 초 양코르 제국 성립 후 12세기 들어서면서 오늘날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에 해당하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세워진 건축물이 바로 양코르와트이다. 2004년 이후 6년간 한국은 캄보디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1위를 차지할 만큼 양국 간의 관광 교류는 활발하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크메르’ 혹은 ‘깜뿌찌어’로 부르기도 한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1970년 수교하였으나, 1975년 크메르 루즈 집권 이후 20여년간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1996년 주 캄보디아 대표부 설치 및 1997년 주 캄보디아 대사관 개설을 거쳐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다. 대 캄보디아 개발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외교, 국방, 경제, 통상,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캄보디아의 ASEAN 가입 후 한-아세안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5년 12월 ASEAN+3 정상회의가 열린 후 우리나라 시장개척단 및 투자 사절단의 캄보디아 방문과 캄보디아의 구매사절단이 한국을 찾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연간 교역액 약 3.8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캄보디아에 중고차, 직물류, 섬유제품, 기계부품 등을 수출하고(3.3억불) 천연고무, 버섯류, 섬유제품, 알루미늄 등을 수입한다(0.4억불).

2. 역사

캄보디아의 기원은 1-6세기 경 메콩델타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후난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난 왕국은 동남아 최초의 대항두 왕족이었으며, 후난이라는 뜻은 산스크리트어로 '산의 왕'이다. 후난왕국은 현재의 캄보디아, 남베트남, 태국의 짜오프라야 하류지역, 라오스 남부지역, 말레이 반도 북부의 뽀따니에 이르는 지역을 석권하였다. 특히 메콩강을 장악한 후난왕국은 농경국가로 성장하였고 메콩강 수상교통의 중심이 되었다. 802년 자야바르만 2세가 앙코르 왕조를 열어 1431년 삼(현 태국)의 침략으로 쇠퇴할 때까지 현재의 캄보디아 영토 뿐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지배하며 찬란한 문화로 크메르 민족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1431년 삼의 침략 후,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기까지 삼과 베트남의 지배를 번갈아 받으며 왕국의 명맥만 유지했다. 1945년 일본의 후원을 받아 시하누크 왕이 독립을 선언하였고 1953년 완전히 독립하였다. 1975년 4월 폴포트가 이끄는 캄푸치아 공산당(크메르 루즈)이 프놈펜에 입성하여 급진혁명을 추진하였다. 특히 크메르 루즈의 4년 통치기간 동안에 대학살이 자행되어 약 이백여 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캄보디아의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다. 1991년 유엔 보호 아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93년 유엔 감독하의 과도정부가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시하누크가 군주의 지위에 복귀하였고, 2004년에 아들인 시하모니 국왕에게 양위하였다. 캄보디아에서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상징적 존재로 남아있다.

3. 문화적 특성

캄보디아의 국교는 불교이며 국민 대다수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영위한다. 불교사원은 예배, 교육 및 사회활동의 장소이고, 승려는 사회에서 존경 받는 계층이다. 캄보디아에서 불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니고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캄보디아인들은 앙코르 유적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캄보디아의 국기에도 앙코르와트 문양이 새겨져 있다. 전통춤으로는 앙코르와트에 새겨진 '압사차 춤'이 있는데 이는 시바신과 비슈누신을 위해서 춘 춤이라고 한다. 오늘날 캄보디아 문화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왕실무용으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즐겨 추는 춤이 되었다.

4. 축제



캄보디아 국기



가운데 흰색의 그림은 대표적인 문화유적, 앙코르와트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찬란한 크메르 문화와 부를 나타낸다. 적색은 불의에 대한 투쟁과 강인한 캄보디아의 정신을, 청색은 캄보디아의 농업과 환경을 상징한다.

캄보디아 기초정보

국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면적: 181,035km² (한국의 약 1.8배)
인구: 14,289,000명 (2010년)
수도: 프놈펜(Phnom Penh)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정부수반: 훈센(Hun Sen) 총리
언어: 크메르어, 불어(50대 이상), 영어(청·장년층)
주요민족: 크메르족 90%, 소수민족(베트남, 중국, 침족, 고산족)
종교: 불교(95%) 기타(5%)
화폐단위: 리엘(Riel)

주요지역



프놈펜 Phnom Penh
 캄보디아의 수도이며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 바삭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어 무역의 중심지였다. 전통양식으로 지어진 왕궁과 킬링필드의 이름을 재현한 투어 슬렝(Toul Sleng) 박물관 등이 있다.



시엠립 Siem Reap
 캄보디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유명한 앙코르 유적이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 이외에도 주변의 광활한 평원에 1000개 이상의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앙코르 유적군은 건축물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미, 벽에 부조된 섬세한 조각들로 세계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톤레삽 호수 Tonle Sap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로 1997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바닷물의 총적 작용으로 주변 땅이 육지화 되었고 그 중 일부가 남아 호수가 되었다. 톤레삽 호수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위에 집을 짓고 사는 수상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시하누크 빌



캄보디아의 남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거의 모든 해외수출입이 시하누크 빌의 항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은 캄보디아의 아름다운 해변가를 볼 수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 **쩌울쯔남(Chaul Chnam):** 매년 4월 중순에 개최되며 크메르의 신년을 기념하여 3일 동안 계속된다. 이 때 크메르인들은 절에 공양을 하고 집을 청소하며 새 옷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 **프롯 뿌레아 뉝꼴(Chhrot Preah Nengkorl):** 매년 5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왕실에 의해 개최되는 농경제로 왕실에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5. 음식

● 꾸이따유(Kuy Teav)

캄보디아인들이 즐기는 쌀국수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으로 만들어진 육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 숭꼬(Soup Kor)

캄보디아식 소고기국으로 비계와 내장에 야채를 듬뿍 넣어 끓인 국이며 쌀밥과 함께 먹는다.

6. 사회

1970년 이래로 약 30년 동안의 캄보디아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크메르 공화국, 민주 캄푸치아,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캄보디아국, 캄보디아 왕국 등 국호도 여러 번 바뀌었다. 수십 년 간의 내전을 종식하고 1993년 첫 의회선거가 실시된 이래 매 5년마다 전국적 의회선거가 실시되어 현재 제 4대 국회와 정부가 구성되어 있다. 정부형태는 총리를 수반으로 하며 현재 캄보디아의 집권당인 캄보디아 국민당의 훈센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7. 교육

교육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크메르 루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1979년 크메르 루즈의 붕괴 이후 다시 재건되고 있다. 교육제도는 1996년 이전에는 10학년제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나, 1996년부터 우리와 같이 12학년제로 바꾸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다.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의 부족으로 오전, 오후반 2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유일한 종합대학인 프놈펜왕립대학에는 2008년 한국학과가 개설되었다.

8. 경제

적극적인 외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 발전 및 정국 안정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1%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2004년 34.7%였던 빈곤지수(유엔이 정한 Human Poverty Index: 1일 1달러로 사는 인구 비율)가 2007년에는 30.1%로 매년 빈곤지수가 1%씩 감소하고 있다. 2008년 9월에 구성된 제 4기 정부(2008-2013)는 농업, 물 및 관개 시스템, 운수 인프라, 전력, 인제 육성, 노동집약형 및 수출주도형 산업, 관광, 천연자원개발, 정보통신, 무역 등 10개 분야를 우선산업으로 정하여 경제발전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의 연간 교역 규모는 약 100억불 규모로 대부분의 기본 소비재와 유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외국인 진출 기업에서 생산하는 의류와 천연고무, 농산물, 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및 석유제품, 직물, 섬유사,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담배, 의약품, 철강제품 등이다. 주요수출국은 미국, 일본, EU 등이며 주요수입국은 홍콩, 대만,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이다. 주요 교역대상국은 일본,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INDONESIA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

인도네시아는 약 2억 3천 4백만 명(2010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다. 인공위성으로 확인한 섬만도 1만 8108개에 이르는 데 이 중에 무인도는 1만 2000개이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섬은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교도를 지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건국이념에 따라 이질성, 복합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슬람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도래하기 전부터 전성하였던 힌두, 불교문화 등 다양한 요소로부터 통일성을 이끌어내어 전통문화 속의 현대문화를 창조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도이자 비즈니스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카르타에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 사무국이 있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를 자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 통상 관계 강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UN, APEC, ASEAN, ASEM, 비동맹 등 모든 국제기구에서 협조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관심 증대로 투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대상국이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SK 텔레콤 등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산림, 대체 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연간 교역액은 229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철강판, 금속제품, 전자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89억불) 천연가스, 유엔탄, 원유 등을 수입한다(140억불).

2. 역사

기원전 약 1세기경에 도래한 힌두문화와 약 13세기경에 전파된 이슬람 문화는 자바, 수마트라, 말레이 반도를 잇는 말레이 문화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보로부두르 불교사원(사일렌드라 왕국 8C중엽-10C 초)이나 프람바난 힌두사원(마타람 왕국, 752-1045년)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탄생시킨 고대왕국 시대를 거쳐 340여 년간의 네덜란드 식민통치, 이어 3년간의 일본 점령기와 독립 혁명기를 지나서 1945년 8월 17일 독립했다. 독립 이후 약 12년간 수카르노 대통령이 집권하였으며 1967년부터 1998년 까지 수하르토 대통령의 시대가 이어지고 이후,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하비비 대통령과 와히드 대통령, 그리고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를 지나 2010년 현재, 재선에 성공한 유도요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있다.

3. 문화적 특성

인도네시아의 480여 종족은 저마다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문화의 특징은 말레이 민족 문화를 기반으로 인도, 중국, 이슬람, 유럽 등 각종 외래 요소가 가미되어 다양성을 띠는 것이다. 그러한 다양성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치 기준이 있는데 '신', '타인', '자연'이 바로 그것이다. 신에게는 예배와 감사, 보은을, 타인에게는 상부상조와 협동을 중시하며 이러한 마음을 건축물이나 직물 문양, 전통가구 등에 표현하고 있다. 특히 타인을 배려하다 보니 실제로 마음은 'NO' 일 때도 절대로 'NO'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배려를 중시하며 자연물에 음식물을 주는 의식을 행한다. 대표 문화로는 고대 페르시아나 이집트에서 도입되어 인도를 거쳐 자바에서 꽃피우게 된 무명 염색 예술인 바틱(Batik)과 고전 예술 공연 와양(Wayang)이 있다. 이것은 그림 자국에 쓰이는 인형, 그림자극을 말하기도 한다. 국민의 약 87%를 이루고 있는 이슬람교도가 사회생활, 문화의 저변을 이루고 있다.

4. 축제

- **족자카르타(Yogyakarta) 예술 축제:** 매년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족자카르타의 전통적 예술과 문화를 보여주는 행사로 퍼레이드와 전통 공연, 예술 작품, 관련 상품, 즐길 거리 등을 소개한다.
- **갈롱안(Galungan):** 발리에서 벌어지는 갈롱안은 악마의 우두머리가 죽은 것을 기념하고 신의 은총에 감사하는 축제



인도네시아 국기



용기를 상징하는 상부의 붉은 색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하부의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1945년 8월 독립 선포시 인도네시아 국기로 정식 채택되었다.

인도네시아 기초정보

국명: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위치: 동남아시아 남단 인도양 서쪽과 동태평양 사이 적도 부근
면적: 1,860,360 km² (한반도의 약 9배)
인구: 234,377,000명 (2010년)
수도: 자카르타(Jakarta)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언어: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주요민족: 자바족, 순다족, 아체족, 바딕족, 발리족 등
종교: 이슬람교(87%), 개신교(6%), 가톨릭, 힌두교, 불교
화폐단위: 루피아(Rupiah)

주요지역



자카르타(Jakarta)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대도시의 위용을 자랑한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국제도시이자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이슬람 사원인 이스티글랄 사원과 한때 리를 암스테르담으로 불리던 중국 상인들의 중심지인 코타가 유명하다.



발리(Bali)

'신들의 섬' 또는 '신들이 사랑한 섬'으로 불리는 발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자바 섬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독특한 발리 힌두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족자카르타(Yogyakarta)

자바 섬 중부에 위치한 특별자치주인 족자카르타는 자바 문화의 중심지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로부두르 불교사원'과 '프람바난 힌두사원'이 있으며 '가자마다 대학교'를 비롯해 많은 대학들이 있다.



롬복(Lombok)

발리와 가깝지만 발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잘 보존된 문화유산 등 롬복만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로, 조상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대나무로 만든 뽀조르(Penjor)라는 장식을 문 앞에 세운다.

5. 음식

- **삼발(Sambal):** 삼발 소스가 빠진 인도네시아의 식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인도네시아 요리에 삼발을 곁들여 먹는다. 삼발의 주재료는 고추, 마늘, 양파, 소금이며 매운 맛을 낸다.
- **나시고렝(Nasigoreng):** 나시고렝(볶음밥)과 미고렝(볶음면)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음식이자 일반적인 음식이며 서까까-리마(포장마차)에서는 물론 고급 레스토랑에서까지 맛볼 수 있다. 신선한 야채와 대하를 넣거나 살롯(보라빛이 도는 양파)과 칠리를 넣어 만든다.
- **가도가도(Gado-gado):** 데치거나 삶은 야채로 만든 샐러드로 숙주, 시금치, 당근, 푸른 콩, 겉절이 콩 등이 주요재료이다.

6. 사회

고온다습한 열대성 문순 기후와 풍요한 식생활 자원, 네덜란드 식민지 생활의 영향, 광활한 영토에 산재한 다민족, 각종 지방 언어, 이슬람 종교가 복합되어 사회적 관습이 다양하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지방으로 갈수록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슬람의 영향으로 실생활 속에서는 결혼과 이혼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 달리 여성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남성상 동등하며 사회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또 이슬람 고유의 전통에 따라 예의 범절이 매우 엄격하여 연장자와 연소자간의 존댓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7. 교육

우리나라와 같이 6-3-3-4년제의 학제를 실시하고 있다. 1994년부터 9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51개의 국립대학교와 1262개의 사립대학이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교육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사립대학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수도 자카르타에 소재한 국립대학교인 인도네시아대학교에 2006년 8월에 4년제 학위과정의 한국학과가 개설되었으며 또한 족자카르타 소재 국립대학교인 가자마다 대학교에도 한국학과가 개설되었다.

8. 경제

2010년 유도요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기반 하에 지속적인 금융, 산업, 고용 구조조정 및 규제 완화, 투자 유치, 환경 개선 등 경제개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4.5-6.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G20 국가에 포함되면서 동남아 지역의 중심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고인 인도네시아는 원유, 주석, 니켈, 천연가스, 석탄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원유와 천연가스는 총수출의 약 70%를 차지한다. 또한 열대작물과 임산물의 세계적인 공급국이며 고무와 커피는 세계 2위와 3위의 생산국이다. 인도네시아의 대외 편중적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국, 대만, 미국, 유럽 등과 무역, 투자 등 대외 거래 분야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LAO PDR

아름다운 미소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는 서쪽 국경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메콩강을 젖줄로 하고 있으며 지형, 생활 풍습, 역사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 나라이다. 예를 들면 책상다리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며, 쌀에 찹쌀을 즐겨 먹는 전통 등이다. 13세기, 북부 루앙프라방을 중심으로 '란상왕국'의 번영을 누렸던 라오스는 근대 이후, 프랑스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이후 국내적으로 왕당파와 국민파간의 정치적 대립을 겪었으며 대외적으로 인도차이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다. 1975년,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라오스는 이제 49개의 소수민족들을 하나로 아우르면서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라오스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서쪽의 '방콕', 남쪽의 '앙코르와트', 북쪽의 '쿤밍', 동쪽의 '호치민 시티'를 연결하는 교통 물류의 중심('from land-locked to land-linked')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ສະເໝີ ມາດາ?
 "안녕하세요?"



1. 우리나라와의 관계

1973년에 우리나라와 라오스는 통상대표관계를 수립하고 이듬해 국교를 수립하였으나, 라오스의 공산화로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가 1995년 국교를 재개하였다. 2001년 1월에는 주한 라오스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총 3,953만 불을 무상원조로 지원하였다. 2003년에 라오스 한글학교가 문을 열었고 문화, 체육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문화공연단은 현지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라오스내의 한류 확산과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라오스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2009년 기준 17,876명으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라오스의 연간 교역액은 약 1.3억 불(2010년 기준)에 달하며 한국은 라오스에 자동차, 의류, 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고(1.1억불) 목재, 기호식품, 의류 등을 수입한다(0.2억불).

2. 역사

오랫동안 타이-까다이 계통의 산, 시암, 라오족을 비롯하여 많은 부족들이 이주해서 살던 곳이다. 첫 번째 라오스 연합체인 므앙(Meuang)은 몽고 황제 쿠빌라이칸이 남서 중국을 침입한 직후인 13세기에 통일을 이루었으며, 14세기 중반 크메르 왕국의 원조를 받은 라오스 장군인 파응움(Fa Ngum)이 랑상왕국을 세웠다. 왕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큰 왕국 중의 하나였으며 지금도 라오스 영광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이 왕국은 14-15세기에 변역을 누리다가 17세기에 세 개의 왕국으로 분리되었으며 18세기말, 대부분의 라오스 지역은 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후 19세기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53년 협정을 통해 완전독립을 보장받았으나 왕권주의자, 중도파, 공산주의자 간에 투쟁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1975년 12월,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이 탄생했으며 1997년 7월, ASEAN에 가입하였다.

3. 문화적 특성

라오인의 일반적인 생활문화를 보면 한국인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나 이웃, 친척간의 깊은 연대감 등이 그렇다. 이웃에 잔치가 벌어지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상부상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라오스의 북쪽 지방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물레방아나 디딜방아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평화롭고 넉넉한 라오스인들의 미소는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4. 축제

- **분방화이(Bun Bang Fai):** 매년 5월에 열린다. 기우제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라오스에서 가장 활기 있는 축제로 음악과 춤을 곁들인 행진과 술을 마시는 잔치가 벌어지며 하늘에 대나무 로켓을 쏘는 것으로 축제를 끝낸다.
- **옥 판새(Ok Phansa)대회:** 비엔티안과 사얀캣, 참파삭을 중심으로 3개월간의 안거를 끝낸 승려에게 시주하고 공덕을 쌓는 축제로 매년 10월 14일에 열린다. 또한 각 지역마다 메콩강에서 보트 레이싱 대회를 연다.
- **분타루앙(Bun That Luang):** 라오스의 최대 불교사원인 타트루앙에서는 매년 11월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라오스 최대의 축제가 열린다. 화려한 촛불을 들고 승려들과 라오스인들은 행렬을 하며 부처의 자비를 전하고 건강을 기원한다.

*분(bun)은 라오스어로 축제를 의미함.



라오스 국기



청색은 라오스 국토의 광대함과 변역을, 붉은 색은 라오스인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용기를, 중앙의 흰원은 메콩강에 떠오른 보름달로 라오스인의 순수한 마음과 건강을 상징한다.

라오스 기초정보

국명: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Lao PDR)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가
면적: 236,800km² (한반도의 약 1.1배)
인구: 6,443,000명 (2010년)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정부형태: 1당제(라오인민혁명당)국가
국가원수: 총말리 사야손 (Choummaly Sayasone) 대통령
언어: 라오스어
주요민족: 49개의 종족, 라오름, 라오통, 라오송 등
종교: 불교 (67%), 기독교 (1.5%), 기타종교 (31.5%)
화폐단위: 킵 (Kip/KN)

주요지역



비엔티안(Vientiane)

메콩강 기슭에 위치한 라오스의 수도로 작지만 (인구 70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다. 중부지방의 하향으로 강을 이용한 수상교통이 발달하였고 주변지역에서 쌀을 집약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의 중요한 경제 중심지가 되었다.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루앙프라방은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라오스 제 2의 도시이다. 라오스 최초의 통일 왕국 랑상의 수도로 지정된 이후 1563년 수도를 비엔티안으로 옮기기까지 800여 년 간 라오스의 문화,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다.



방비엥(Vang Vieng)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 사이의 작은 도시이다. 산과 마을을 지나며 흐르는 깨끗하고 맑은 냇강과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은 튜빙, 카약킹, 동굴트래킹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배낭여행자들의 3대 블랙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파ксе(Pakse)

파ксе는 식민 지배 시절 프랑스가 라오스 남부를 통치하기 위해 만든 도시로 라오스 남부의 경제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이다. 라오스 남부는 오랜 기간 여행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앙코르 유적으로 유명한 앙 푸, 4천여 개의 섬이 모인 씨판돈 등 남부지역 고유의 색깔을 간직한 명소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5. 음식

- **카오 니아우(Khao Niao):** 증기에 찐 찰쌀밥으로 대나무로 만든 원통형 용기에 담아 맨소로 식사한다.
- **랍(Raap):** 다진 고기에 각종 향채와 야채, 볶은 쌀가루 등을 섞은 샐러드로 밥과 함께 먹는 음식이다. 행운을 뜻하는 라오스어와 발음이 같아 '귀한 손님에게 행운을 드린다'는 의미로 대접한다.
- **퍼(Poe):** 소뼈로 우려낸 국물에 각종 허브 야채 등을 넣어 먹는 쌀국수로 현지인들은 고춧가루, 고추기름, 핫 소스 등을 넣어 맵게 먹는다.

6. 사회

불교는 라오스인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라오스인의 사고방식 속에 불교사상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사찰은 전통적으로 촌락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승려의 여전히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계층 중의 하나이다. 예전에는 소승불교가 국교로 보호되었으나, 현 인민민주공화국 정권 하에서 국교는 없다. 1970년대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후 불교는 많은 탄압을 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주의 정권과 불교 간의 공생관계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이 나라 사람들은 악수를 하지 않으며 불교식으로 두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합장한 손끝이 높이 올라갈수록 존경과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하는데 대개 손끝의 높이가 코끝 높이 정도이다. 라오스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족관계 이상의 일차적 사회관계라는 농업사회적 특성이 촌락공동체를 통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7. 교육

라오스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교육 6년(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 대학교 4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취학률은 전국 평균 71%에 불과하다. 교육 시설의 규모는 초등학교는 부락 단위, 중학교는 촌 단위, 고등학교는 구 단위에 위치해 있으며 그 외에도 직업학교, 교원양성학교, 소수민족을 위한 학교 등이 있다. 성인 문자 해독율은 전국 평균 73%이다. 우리 정부가 라오스에 지원한 '루앙프라방 국립대 건립 사업'은 2005년에 착공하여 2008년에 개교하였다.

8. 경제

세계최빈개발도상국인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국 탈피를 목표로 '국가사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행에 힘쓰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 성장은 주로 라오스 보유 천연자원을 이용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수력발전 및 광업) 및 원조 공여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각 분야의 역량 강화와 투명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라오스는 2001년을 기점으로 10년 달성 목표를 계속 추구하면서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라오스에 수출하는 물품들은 자동차, 기계류, 철강 제품, 전기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동 및 동제품, 목재류, 기호식품 등이다. 향후 서방 세계와 관계개선을 통하여 서방세계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산업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MALAYSIA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

말레이시아



이 나라가 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의 국토는 말레이시아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동 말레이시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다. 역사적으로 5-6세기에 걸쳐 유입된 힌두교와 불교문화가 북서부 지역에 전파되었고, 14세기 무렵 아랍상인에 의해 전해진 이슬람교는 말레이시아의 대표 종교가 되었다. 13세기 이후 20세기 초까지 서양 식민 열강의 지배를 받다가 1957년 8월 31일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다. ‘비전 2020’(Vision 2020, Wawasan 2020) 정책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비상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196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양국관계가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특히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발전의 모델로 삼고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양국은 2010년에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 안보, 무역, 투자 및 문화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양국 간 쌍방향 투자 외에도 에너지, IT, 관광, 금융 등으로 경제 협력 분야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연간 교역액은 156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반도체, 컴퓨터, 철강판 등을 수출하며(61억불) 천연가스, 반도체, 석유제품 등을 수입한다(95억불).

2. 역사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13세기까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한 말레이시아는 식민 열강들이 당시 국제적인 교역항이었던 말라카(Malacca, Melaka)를 침입하면서 외세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16세기에 포르투갈이 침공한 이후 네덜란드가 말라카를 점령하고, 18세기에 영국이 페낭(Penang)을 점령하면서 20세기 초까지 외세의 지배 아래 있었다. 바다 건너 보르네오 섬에 있는 사라왁(Sarawak) 주는 1841년 이후 영국 모험가인 제임스 브록(James Brooke)과 그의 후손들이 통치하였으며 1888년에 사라왁 주와 북보르네오[후에 사바(Sabah)로 개칭]는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이후 말레이시아는 1957년 8월 31일,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으며 1963년에 동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1965년 분리, 독립)를 포함한 현재의 말레이시아 연방을 성립하였다.

3. 문화적 특성

약 2천 8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결집하여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함께 살아간다. 이슬람과 중국, 인도, 서구의 가치가 공존하며 다양한 종교와 의례들이 혼합되어 형성되었다. 여러 종류의 복장, 관습, 노래, 춤 등의 전통문화는 문화 간 교류의 통로 구실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여러 민족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연극, 무용, 음악 대중문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가장 중요시한다.

4. 축제

- **디파발리(Dipavali):** 디파발리는 힌두교인들의 빛의 축제이다. 타밀(Tamil) 달력의 첫째 달에 해당하는 10월 혹은 11월 중에 대규모 신년 축제를 즐기게 된다. 축제가 시작되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다채로운 전통의상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만끽한다. 힌두사원에서는 실제 돈을 주고 산 가짜 종이돈을 태우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하고 그릇을 깨며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
- **하리 라야 아이딜 피트리(Hari Raya Aidilfitri):**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축제를 통해 계명을 지킨 것을 자축한다. 이슬람 최대의 명절로 말레이계가 대부분 이슬람을 믿고 있어 국가의 기념일이나 명절도 이슬람 전통에 따른다.
- **타이푸삼(Thaipusam):** 매년 1월에 열리는 힌두교의 속죄와 참회의 고행일로 무가신과 수브라마니암신의 영광을 기리는 날이다.



말레이시아 국기



14개의 적백횡선은 연방정부와 13개 추가 평등함을 나타내며 좌측 상단의 감색은 단결을, 초승달은 이슬람교를 각각 상징한다. 14개의 성령을 발산하는 별은 13개 정부와 연방 정부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연방을, 별과 초승달의 황색은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각각 상징한다.

말레이시아 기호정보

국명: 말레이시아(Malaysia)
위치: 동남아시아 적도 북단
면적: 330,252km² (한반도의 약 1.5배)
인구: 28,251,000명 (2010년)
수도: 쿠알라룸푸르 (Kuala Lumpur)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국왕: 양디 페르투안 아공(Yang di-Pertuan Agong)국왕
언어: 말레이어(바하사 말레이시아어가 공용), 영어 통용
주요민족: 말레이계(58%), 중국계(25%), 인도계(7%), 기타(10%)
종교: 이슬람교(국교), 불교, 힌두교(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
화폐단위: 링깃 (Ringgit/RM)

주요지역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말레이시아 연방의 수도이며 무역, 상업, 금융, 교통, 정보, 산업, 관광의 중심도시이다. 도시 중심부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한국과 일본이 한쪽씩 맡아 완공한 건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랑카위(Langkawi)
 9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군도이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로 50분 거리에 있으며 석회암 지대의 동굴, 우뚝 선 바위들, 빙하의 풍유석 등 자연환경 때문에 2007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페낭(Penang)
 1786년에 영국의 무역거점이 되면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동양의 진주', '인도양의 에메랄드'로 불린다. 인도양 위에서 보면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고 다채로운 불거리가 많다.



말라카(Malacca, Melaka)
 말레이반도의 남서부에 위치한다. 말라카해협은 해상교통상의 요충지이며, 동남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이다. 세인트폴 언덕의 유적을 비롯하여 에이파모사, 스타데이스가 그것이며, 이밖에 박물관도 있다.

5. 음식

- **나시(Nasi):** 말레이시아의 주식인 쌀은 부슬부슬한 '인디카' 종이다. 이것을 전기밥솥이나 그릇에 담아 끓는 도중에 물을 버리거나 휘저으면서 끓이면 말레이시아의 쌀밥인 나시가 된다. 기본 식사로 '삼발'(Sambal)이라는 양념과 같이 먹는다.
- **노나(Nonnya):** 중국과 말레이 음식의 현지 변종으로 중국 조미료와 고추나 코코넛 밀크 같은 현지 향료를 함께 넣어 요리한다. 가정에서 많이 만들어 먹는 요리이다.
- **중국계 음식:**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쉽게 먹을 수 있다. 동부의 중국식 음식은 주로 쌀과 야채를 섞어 요리한 음식과 해산물을 볶거나 튀긴 음식이 대부분이다.
- **인도계 음식:** 남인도 음식은 주로 야채를 많이 쓰며 매운 편이고 북인도의 모골요리는 값이 비싼 편이다. 인도계 요리 중 탄두리(Tanduri)도 즐겨 먹는다. 탄두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화덕을 칭하며 계속 숯불에 달구어져 있다. 이 화덕에 양이나, 닭, 돼지고기를 바비큐 스타일로 구워지는 음식을 탄두리 음식이라고 한다.

6. 사회

1971년 이후, <부미푸트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말레이인 우대정책의 총칭이다. 인종 간, 부의 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 정책은 빈곤세대가 많은 농촌 말레이인의 소득향상과 경제기회를 통해 중국계가 지배적으로 되어 있는 경제를 재편하고자 한 것이다.

7. 교육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5년(초급 3년, 상급 2년), 대입준비 과정 2년, 대학교 3~4년의 학제를 갖고 있다. 초등학교 6년 및 중학교 초급 과정3년은 무상교육이다. 인구에 비해서 대학 수가 적고 부미푸트라 정책에 의해 인종별로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계들의 대학 입학이 어렵다. 교육은 민족에 따라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로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공용어는 말레이어다. 국립말라야대학교에 한국학 전공과정이 개설되었으며 말레이시아국립대학교, 국립프트라대학교, 말레이시아과학대, 마라공대 등에 한국어가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었다.

8. 경제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전 2020'이라는 장기 발전 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경제 발전 전략의 기조로 1980년대부터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의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82년부터 '동방정책'의 기치 아래 전기·전자를 비롯한 제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전기·전자 등 제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전기·전자 제품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수출 상품으로 부상하였다(수출액의 약 45%). 최근에는 지식산업인 IT산업, BT산업과 함께 금융과 관광 산업의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ASEAN 경제공동체 결성, 동아시아 경제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교역국과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이라 한국, 일본,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무슬림 국가와 비동맹국가 등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슬람금융, 중동, 아랍지역의 건설시장 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자원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주요 수출품은 전기·전자 제품, 종려유, 원유, LNG, 화학 및 화학제품, 기계류, 금속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중간재와 소비재, 자본재 등이다.

MYANMAR

불탑의 나라,

미얀마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인도차이나반도 서북부에 자리하고 있는 미얀마는 한반도의 약 3배가 넘는 광활한 영토에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또한 야생의 산림, 아름다운 해변과 2천년의 역사를 품은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력을 지닌 나라다. 고대 도시의 유적과 더불어 135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의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고 수많은 파고다와 불상을 통해 불교 문화를 꽃피운 나라이기도 하다. 전 인구의 90%가 불교도라 수준 높은 불교문화를 자랑한다. 매년 많은 불교 신자들과 관광객들이 불교 유적지를 찾고 있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우탄트)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국은 미얀마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1988년 9월 미얀마 군사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 증진을 희망하여 친북한 노선을 버리고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개선하였으며 1989년 3월 주한 상주대사관을 설립하였다. 1989년 10월, 제44차 UN 총회에서 미얀마 대표가 최초로 우리 입장을 지지하며 친한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의 국제기구 입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1988년 이래 문화 및 예술 교류뿐만 아니라 태권도, 축구 등 체육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높아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지니고 있다.

한국과 미얀마의 연간 교역액은 6.4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미얀마에 철강제품, 산업기계, 직물, 석유화학 제품 등을 수출하며(4.8억불) 광물성 원료, 섬유제품, 농산물 등을 수입한다(1.6억불).

2. 역사

약 1만 년 전, 티베트-미얀마어계 민족이 에아워디강 상류에 처음으로 정착하였고 1044년 버마족 바간왕조의 어노여타가 왕위에 올라 최초로 현재의 미얀마 지역을 망라하는 통일 왕조국가를 건설하였다. 1287년, 몽골족의 침략을 받아 바간왕조는 멸망하고 다시 혼란 상태에 빠졌으나, 16세기 따웅우 왕조가 성립되어 재통일이 이루어졌지만, 남부의 몬족을 비롯하여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와 치열한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후 미얀마 북부의 영주였던 알라웅파야를 중심으로 1759년 전국도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버마족 중심의 왕국인 공바웅 왕조를 건설했다. 공바웅 왕조는 지금의 미얀마 영토를 규합하는데 성공하였지만, 1885년 영국과의 세 차례의 식민지전쟁에서 패망하여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48년에 의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미얀마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였다. 1962년부터 군사정부가 집권하고 있으며, 2008년 신헌법을 제정하여 2010년 11월 7일 새로운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반세기 만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민간정부가 들어섰다.

3. 문화적 특성

남인도 상인들이 오랫동안 미얀마 남부지역의 항구를 중심으로 한 교역을 벌여 종교, 문학, 건축, 공예, 연극 등에서 인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히하게도 불교문화의 영향력은 컸지만 힌두교문화의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또한 중국 문화권과도 접촉이 있었으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 미얀마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공존하고 있어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기도 하다.

미얀마의 공예와 공연 예술은 농경생활의 절기, 상징불교, 정령숭배인 나트(Nat)신앙의 축제, 왕가의 의례 속에서 육성되어 왔다. 불경의 스토리를 전통연극으로 공연하는 '자트뽀웨', 전통인형극 '우땃뽀웨', 전통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사잉와잉'이 유명하며, 타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통 하프인 '사웅가옥'이 현존하고 있다.

4. 축제

• **까송(Kason)**: 5월에 있는 축제로 석가의 탄생, 득도, 열반 등 석가의 주요 삼대사가 5월 중에 있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여성들은 신성시되고 있는 보리수에 물동이를 이고 가서 뿌려주는 풍습이 있다.



미얀마 국기



2008년에 제정된 신헌법에 의해 2010년 10월부터 미얀마의 국기는 결속, 평화, 용기를 각각 상징하는 노랑, 녹색, 빨강의 삼색 바탕 위에, 연방의 의미를 강조하는 큰 별 하나가 중앙에 들어가는 문양으로 변경됨.

미얀마 기초정보

국명: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의 서북부
면적: 676,577km² (한반도의 약 3배)
인구: 61,187,000명 (2010년)
수도: 내피도(Nay Pyi Taw)
정부형태: 과도군사정부
국가원수: 떤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
언어: 미얀마어(공용어), 영어통용
주요민족: 버마족(70%), 소수족(25%: 카친, 카렌족 등), 기타(5%: 중국, 인도 등)
종교: 불교 (89.5%), 기독교 (5%), 이슬람교 (4%) 외
화폐단위: 쾃트(Kyat)

주요지역



양곤(Yangon)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인구 500만의 거대 도시이다. 아름다운 공원과 호수가 있어서 '동방의 전원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도시 전체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미얀마의 관문 역할을 하며 미얀마의 상징인 쉐더궁 파고다를 포함해 수많은 불탑들이 있다.



바간(Bagan)

세계 최대의 고고학적 유적지이며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고대 바간왕조의 왕도로 3,000여기의 불탑들은 화려한 문화와 건축 예술을 꽃피웠던 그 시절의 영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만달레이(Mandalay)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인 공바웅 왕조의 왕도였던 만달레이는 미얀마 제2의 도시이며 사실상 버마족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왕궁을 중심으로 각종 유명한 파고다들이 즐비하다.

• **더장 또는 띠장(Thingyan)**: 4월 중순에 시작되는 신년을 기념하는 미얀마 최대의 물 축제이다. 지난해의 악운을 씻어내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로 불상의 얼굴을 향해 내리는 물로 씻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뜻으로 물을 뿌린다. 축제는 대체로 두 주간 계속된다.

• **싱부(Shinbyu)**: 미얀마 풍습에 의해 모든 소년들은 12살 이내에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하여 며칠 또는 몇 주간 동안 수도원에서 수련을 쌓는다. 여성은 상징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승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싱부 의식 대신 귀에 귀걸이 구멍을 내는 천공의식을 가지기도 한다.

5. 음식

• **오누쿠하우크스웨(Ohnukhaukswe)**: 미얀마를 대표하는 전통음식 중의 하나이다. 결혼식이나 잔치 등에서 빠질 수 없는 것으로, 코코넛야자의 즙에 닭고기를 넣어 끓인 스튜에 쌀국수를 비벼 먹는다.

• **모힝가(Mohinga)**: 메기를 푹 삶아 끓여 만든 걸쭉한 스프에 쌀국수를 말아 먹는다. 미얀마의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다.

• **응어빠(Ngapi)**: 한국의 젓갈과 비슷한 음식이지만, 다른 동남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물생선으로 만든다. 응어빠는 미얀마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향신료이다.

6. 사회

가족 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중시하며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거의 동등하다. 연장자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있으며, 단순하고 소박한 의상을 입는다. 불교와 자연 환경적 요인으로 모든 생활에 여유가 있다. 경제 생활에 있어서 지나친 물욕을 탐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체로 공정한 상행위를 한다. 재산을 축적하여 개인적인 것에 사용하기 보다는 내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공덕을 쌓는 일, 특히 파고다를 건축하는 종교적 행위에 중점을 둔다. 불교의 영향으로 쇠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많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즐겨 먹는 편이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이 상할 수도 있어 거의 모든 음식을 튀기며, 날 것으로 먹는 것을 대체로 피한다.

7. 교육

교육제도는 유치원 1년(만 5세), 초등학교 4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대학교 3(4)년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교육과정의 학비는 거의 무료이나 의무교육은 수용 능력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열은 우리나라에 못지않다. 양곤과 만달레이에 있는 외국어대학교의 미얀마어과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대학 입학은 불가능하다. 1993년 9월에 양곤외대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었으며 이후 1998년에 만달레이외대에도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 하지만, 이들 대학 외에 많은 승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8. 경제

1988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으나 경제정책 기조는 거의 변화가 없이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 같은 해에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 투자 및 지사 설치를 허용하고 민간기업의 대외교적 허용과 무역의 활성화로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외화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산업의 개발을 육성하고 AFTA 가입을 통해 ASEAN 주변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력산업은 농업, 광업, 임업 등 1차 산업이며 최근 해상 천연가스전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자원개발 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천연가스, 티크 및 경목, 공류, 의류, 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운송장비, 정유, 비금속제품, 전기기계 등이다.

PHILIPPINES

축제의 나라,

필리핀



미안다 당 우미나?
“안녕하세요?”

7107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필리핀은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의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말레이계와 중국인, 미국인, 스페인 및 아랍 혈통의 후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방의 식민통치 역사와 무역 상인들의 혈통이 섞여 외모와 문화적으로 독특한 동서양 혼합 양상을 나타낸다. 세계 3대 해변으로 꼽히는 보라카이 해변과 바나우에 마을의 계단식 논이 유명하며 특히 계단식 논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이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필리핀은 한국전 당시 우리나라에 7148명을 파병하여 철의 삼각지대에서 중공군 부대를 격퇴하는 등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우방국으로 지난 60여년간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1963년 한국 최초의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지을 때 필리핀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았다. 1949년 수교를 맺은 이래 대 필리핀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휴대폰 등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구리, 금속부산물, 컴퓨터, 반도체 등을 수입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필리핀 투자를 늘려 우리나라가 외국인 직접 투자 1위국이 되기도 했다.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3년 연속 필리핀 최대 방문국으로 기록되었다. 한국과 필리핀의 연간 교역액은 93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필리핀에 광물성 원료와 철강제품 등을 수출하고(58억불) 전자부품, 비철금속제품, 농수산물 등을 수입한다(35억불).

2. 역사

포르투갈 태생의 스페인 항해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1521년 필리핀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필리핀은 중국, 인도, 말레이 상인들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었다. 15세기부터 민다나오 섬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스페인이 필리핀 정복사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대부분 지역이 이슬람교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1565년부터 필리핀을 무력 정복하기 시작한 스페인은 16세기 말 북부와 중부 대부분의 지역을 식민지화하였으며, 정복지역에는 가톨릭을 전파하였다. 스페인 식민통치는 1565년부터 1898년 6월 12일 독립까지 333년간 지속되었다. 스페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1898년 미국에게 필리핀 군도의 주권을 할양하였다. 이후 1935년 미국의 주권 하에 필리핀 자치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41년에는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하기도 했다. 일본군으로부터 해방된 후 미국과의 합의 하에 1946년 7월 4일 필리핀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3. 문화적 특성

필리핀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와 스페인, 미국 문화까지 혼합되어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로마 가톨릭이 전 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은 마음으로는 정령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복잡한 종교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인들의 친족 정신은 말레이족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긴밀한 가족 관계는 중국인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또한, 신앙심은 16세기 기독교를 전파한 스페인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았다. 친절은 모든 필리핀인의 공통 성격이며 구별되는 요소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축제를 좋아하여 도시마다 마을마다 고유한 축제를 성대하게 연다. 수호성인의 축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필리핀의 축제 문화는 일년 내내 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제는 곳곳에서 벌어진다.

4. 축제

- **아티아티한 축제 (Ati-Atihan):** 13세기 이주해온 보르네오 족장 10명과 토착민 아티완 마리쿠도 사이의 토지 거래를 기념하는 축제로 이 도시의 수호성인인 어린예수(산토니뇨)를 기린다. 1월 13일 -19일에 열린다.
- **시놀로그 (Sinulog):** 세부에서 열리는 축제 중의 하나로 10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복장단에 맞추어 기도하는 춤을 춘다. 두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후퇴하는 춤



필리핀 국기



국기의 흰색은 평등과 우애, 파란색은 평화, 진실, 정의 그리고 빨간색은 애국심과 용맹을 각각 상징하는데 전쟁 시에는 빨간색과 파란 색이 서로 바뀐다. 삼각형 안의 노란 태양은 자유를 뜻하며 태양의 여덟 갈래의 빛은 스페인에 대항한 8개의 주를, 세 개의 별은 필리핀의 주요 세 지역인 루손섬, 비사야 제도, 민다나오 섬을 의미한다.

필리핀 기초정보

국명: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위치: 북쪽으로 대만, 남서쪽으로 말레이시아,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와 근접
면적: 300,000km² (한반도의 약 1.3배)
인구: 94,013,000명 (2010년)
수도: 마닐라(Manila)
정부형태: 입헌공화국
국가원수: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Benigno 'Noy' S. Aquino III)
언어: 영어, 타갈로그어
주요민족: 말레이계,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종교: 가톨릭(83%), 기독교(9%), 이슬람교(5%), 불교 및 기타
화폐단위: 페소 (Peso)

주요지역



마닐라(Manila)
 필리핀 최대의 섬 루손에 있는 필리핀의 수도로 과거와 현재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도시이다. 필리핀 전 지역을 아우르는 행정, 경제, 상업, 교육의 중심도시다. 산티아고 요새, 성 야구스틴 성당, 알라카방 궁, 메트로폴리탄 마닐라 박물관 등이 유명하다.



보라카이(Boracay)
 세계 3대 해변으로 꼽히는 필리핀의 작은 진주이다. 필리핀어로 바람의 벽을 뜻하며 에메랄드빛 바다와 산호 가루로 만들어진 해변이 특징이다. 세계비치대회에서 1등을 했다.



세부(Cebu)
 비사야 제도 중앙에 있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다. 1521년에 마젤란이 유럽인 최초로 도착한 곳이며, 스페인 식민시대의 문화와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곳으로 남부의 상업 중심지이며 세계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몰려든다.



바기오(Bagui)
 루손 섬 북쪽 뱅게트 주의 중심 도시인 바기오는 1,500m의 고원 지대에 있는 도시로, 사시사철 서늘하고 쾌적한 기후 '필리핀의 여름 수도'라 불린다. 메트로 마닐라로부터 북쪽으로 250km 떨어져 있는 바기오는 교육의 도시로 유명한데, 쾌적한 날씨로 공부하기 좋은 환경 덕에 많은 대학이 있고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사위가 독특하다.

- **디낙양 (Dinagyang):** 일로일로 시의 사람들이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여하는 연례행사이다. 일상의 지루한 옷을 벗어버리고 몸에 검을 칠을 한 뒤 아미 전사의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복장단에 맞추어 전속력으로 뛰쳐나가기도 한다.

5. 음식

- **외국 음식의 영향:** 요리 재료의 종류와 조리 방법의 다양성에서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쌀을 주식으로 하며 '가타' 라고 하는 코코넛 즙을 음식의 주재료로 사용한다.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인 레첸(통돼지구이), 롬피아(튀김), 판시북(국수) 등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스페인의 지배로 메자도, 메뉴도, 칼로스 등 스페인 식 요리도 대중들이 좋아한다.
- **해산물 요리:** 7천여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답게 해산물이 풍부하다. 해산물을 조리하는 전통 요리들은 보르네오 섬에서 건너온 초기 개척자들, 즉 말레이족의 음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역사를 자랑한다.

6. 사회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 친구 친지간의 유대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데 이는 바랑가이(Barangay)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바랑가이는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후 1500년에 걸쳐 필리핀으로 이주한 말레이인들이 사용했던 60-90명의 사람들을 태우는 배를 의미한다. 바닷가의 바랑가이는 지역 사회의 집회장소 역할을 하였고, 정착 후에는 독립적인 지역사회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보통 30-100개 가정으로 이루어진 바랑가이는 필리핀의 고유한 정치사회적 기관이며 최소 행정단위이다.

7. 교육

필리핀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년, 대학교 4년이 기본이며,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6세이며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고등학교)을 수료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대학별로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4학년 때에 전국적으로 치르는 학업성취도시험 결과를 가지고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중등교육까지는 적은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개발도상국 중에서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필리핀 내 최초의 대학은 1611년에 세워진 산토토마스 대학이며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는 성직자들에 의한 종교 교육이 시행하였다. 그 후 미국은 공립 초중등학교를 정비하였으며 1908년에는 국립 필리핀 대학을 설립하였다. 수업은 과목에 따라 필리핀어(Filipino)와 영어가 동시에 사용된다. 1970년에 주 필리핀 한인학교가 설립되었다.

8. 경제

극심한 빈부격차와 낮은 농업 생산성, 높은 인구 증가율과 실업률로 인해 필리핀의 경제 상황은 아슬아슬 국가 중 발전 속도가 느린 편에 속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회복세를 보였고 2010년에는 무역투자 부문 자유화 확대와 정치 안정으로 34년 만에 최고치인 7.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의류, 구리, 석유화학, 가구 등이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이며 전자 반도체 등을 수입한다. 삼성전자, 애플 등 한국 회사들이 진출해 있다.

SINGAPORE

경제

금융의 중심지,

싱가포르



이 새끼가 커?
헬로우? 니하오?
안녕하세요?

63개의 작은 섬들이 모여 구성된 도시국가로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싱가포르의 국토는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도시국가이다. 말라카 해협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활용하여 싱가포르는 교통, 통신의 중개지 역할과 더불어 무역, 금융,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조화롭게 다민족, 다종교 사회를 이루어 살고 있는 것도 특색이다. 'SINGA PURA' 즉 '사자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나라는 다채로운 매력과 아름다운 관광 명소들을 기반으로 휴양지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1975년 8월 수교한 이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3월, '한-싱 FTA' 발효 이후 양국 간의 교역이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양국 간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번째 FTA로 단기적 교역확대 보다는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위치,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싱가포르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부동산, 물류, 항만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무역, 해운 물류, 에너지, 전자, 건설, 금융 등에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또한 중동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최대의 해외건설시장이기도 하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연간 교역액은 231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싱가포르에 석유제품, 선박, 해양구조물 등을 수출하고(152억불)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을 수입한다(78억불).

2. 역사

싱가포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3세기 중국의 문헌에 흔적이 남아 있다. 14세기경 스리비자야 왕국의 일부로서 자바어로 '바다마을'이라는 뜻의 테마섹으로 불리었다가 이후 쇠락하였다.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고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1819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 지역에 상륙하여 조호르의 술탄과 계약을 맺고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싱가포르라는 크게 발달하였다. 이후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가 1963년에 독립하여 말레이시아 연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2년 후, 이념적인 차이로 연방을 탈퇴하였으며 1965년 8월 9일 새로운 독립 국가로 탄생했다.

3. 문화적 특성

싱가포르는 원래 살던 말레이계 인구와 이민 온 중국인, 인도인과 아랍인을 포함한 여러 민족과 문화가 다양하게 섞여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영국 식민지 문화와 페라나칸(말레이 문화에 동화된 중국인)문화, 그리고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계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대식 건물 사이에도 도로 및 힌두교, 불교 사원 등 역사적인 문화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동안 대학에 예술학부가 없는 등 실용주의 정책을 펴왔으나 최근에는 경제 발전과 문화예술 증진을 연계하여 싱가포르를 경제와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복합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축제

- **음력 설날**: "Chinese New Year" 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와 같이 가장 큰 명절로 온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 **하리 라야 푸아사(Hari Raya Puasa)**: 가장 큰 이슬람 축제로서 한 달간 금식하는 라마단의 마지막 날에 열린다. 겔랑 로드 말레이 빌리지 부근에는 라마단 기간 내내 야시장 이 서고 거리에 오색등을 밝힌다.
- **디파발리(Deepavali)**: 힌두교의 크리쉬나신이 악마와 라바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 이 기간 동안 집 밖에 불을 밝혀두기 때문에 불의 축제라고도 부른다.

5. 음식

- **광동 요리**: 독창성과 부드러운 감촉으로 유명한 광동 요리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국요리로 싱가포르인들은 상어지느러미 수프, 새끼 돼지구이와 닭튀김을 즐겨 먹는다.



싱가포르 국기



국기 윗부분의 빨간색은 동포애와 인류애를 상징하고 아랫부분의 흰 색은 순결과 미덕을 상징한다. 5개의 별은 민주, 평화, 진보, 평등, 공정의 5대 이상을 뜻하며 초승달은 이러한 이상을 향해 전진하는 신생 국가 싱가포르를 의미한다.

싱가포르 기초정보

국명: 싱가포르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
위치: 말레이 반도 남단
면적: 710km² (서울시의 약 1.2배)
인구: 5,165,000명 (2010년)
수도: 싱가포르(Singapore)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토니 탄(Tony Tan) 대통령
언어: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주요민족: 중국계(74.7%), 말레이계(13.6%), 인도계(8.9%), 기타
종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화폐단위: 싱가포르 달러 (Singapore Dollar)

주요지역



남부지역

싱가포르로 건너온 아랍 상인들과 이슬람교도들에 의해서 형성된 아랍 스트리트에는 1828년에 건립된 술탄 모스크를 비롯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상점들로 준비하다. 술탄 모스크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이다. 이 외에도 인도인들이 모여 사는 리틀 인디아를 비롯하여 과거에 중국인들이 모여 살았던 차이나타운이 있다.



동부지역

1920년대 중국 상인이었던 '치우 주췌'이라는 사람의 땅이었던 주췌거리에는 '페라나칸 집'이라고 부르는 가지각색의 무늬가 그려져 있는 아름다운 집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한적한 매력에 넘치는 '창이 빌리지'도 이 지역에 있다.



중부지역

이 곳에는 '보타닉 가든'과 '마리나 시티 공원', '홀랜드마을'이 있는데 '보타닉 가든'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수천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다. '마리나 시티 공원'은 현대적 감각의 예술이 살아있는 곳이며 '홀랜드마을'에는 일상용품에서부터 골동품까지 파는 상점들이 많아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센토사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하는 센토사 섬은 1960년대 후반까지 영국군의 군사 기지였다가 1972년 관광지로 개발되었다. 해변, 수족관, 입체 영상, 카지노, 다양한 놀이기구 등 모든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즐길 거리와 무료 교통편이 잘 갖춰져 있어 해마다 5백만 명이 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온다.

베이징 덕, 하이나니즈, 치킨 라이스, 쓰촨요리와 학가 두부 등 다른 지역의 요리도 맛있다.

- **노나 요리**: 15세기 경 말레이 반도에 이주하여 말레이 여자와 결혼한 중국인들의 후손에 의해 개발된 요리를 말한다.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두 음식 문화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중국요리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재료들이 말레이식 향료와 함께 섞여 있다.
- **인도요리**: 순한 맛을 내는 북인도 요리와 매운 맛이 특징인 남인도 요리로 나눌 수 있다. 북인도 요리로는 향신료를 친 탄도리 치킨, 남인도 요리로는 피시헤트카레가 유명하다.

6. 사회

다민족 국가로서의 통합을 위하여 종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에 따른 상이한 사회관습을 존중한다. 국민성은 대체로 유순한 편이며 중국 화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전관계가 명확하고 철저하다. 영국의 오랜 식민지 지배로 인해 의식구조는 서구화되어 있으며 남녀차별은 없다. 도시 국가와 정원국가를 내세우며 '동남아의 별'로 불린다. 공동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벌금제도를 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횡단을 하거나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껌이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범죄율이 낮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하나로 손꼽히는 싱가포르는 교통과 주택문제를 고려해 도시 공간 이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7. 교육

싱가포르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교육 4년, 고등교육 (대학 전 예비학교) 2년(3년) 대학교 4년이다. 모든 학생은 초등학교 6년과 중등학교 4년 등 10년간 일반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나라는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로 구성된 복합 사회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통한 국민통합 의식 양성을 국가 존립기반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였으며 교육과정은 언어교육을 중시하여 영어를 필수언어로 하여 반드시 2개 언어를 이수해야 하는 2중 언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및 지식 기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실용주의적, 생존 전략적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 과정마다 경쟁을 통해 소수 정예만이 대학과정을 마칠 수 있는 능력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한국학교가 1993년 3월에 개교했다.

8. 경제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대외개방형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 외자를 이용해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여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전자, 기계, 제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싱가포르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지식기반 위주의 경제 구조를 추구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 산업 개척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항으로 세계 환적량의 1/4을 담당하며 뉴욕, 런던에 이은 세계 3대 원유 거래시장이다. 또한 관광대국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국제 경쟁력 관련 주요 지표들을 보면 기업하기 기업 환경 1위, 국가 경쟁력 3위, 경제 자유도 2위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주로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다.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THAILAND

자유의 땅,

태국

싸와디 캄(카)?
“안녕하세요?”



지리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태국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역내 국가들과 국경이 맞닿아 있고 메콩 강의 지류에 위치한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서구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로 국호는 ‘자유(Thai)의 땅’을 의미하는 Thailand이다. 또한 인도, 중국, 캄보디아,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문화유산과 유적을 갖고 있는 태국은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대국이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태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아주 각별하다. 일찍이 고려 왕조 말기와 조선왕조 초기인 14세기 말에는 태국 왕의 사신으로 자처하는 무역 상인들이 여러 번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이에 대한 답례로 태국에 사신을 파견했지만, 이 사신은 태국 국왕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태국은 1949년 10월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했다. 그리고 6.25 전쟁 발발 5일 후인 1950년 6월 30일 쌀 4만을 지원키로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한국전쟁 지원의사를 밝혔으며, 1950년 11월 7일 첫 파병군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등 연인원 1만 3천여명이 참전해 136명이 전사했다. 이후 1958년 10월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해(아홉번째의 한국 수교국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국관계는 지난 50년 동안 외교·안보, 무역·투자, 사회·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 상생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ASEAN, ASEM, APEC 등 다자관계에서도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한국과 태국의 연간 교역액은 106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태국에 강열강판, 프로세스 컨트롤러,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며(65억불) 반도체, 천연고무, 프로세스 컨트롤러 등을 수입하고있다(42억불).

2. 역사

타이족의 기원에 관한 학설은 분분하나 대체로 타이족은 AD 651년에 중국 운남성에 난자오 왕국(남조국)을 건립했으며 1253년 몽고의 쿠빌라이칸에 의해 왕국이 정복됨으로써 남쪽으로 이동하여 현재의 태국 북부 및 라오스 북부, 미얀마 북동부에 걸쳐 소국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13세기에 이르러 타이족 소국가가 연합해 오늘날의 태국 땅에 쑤코타이 왕국(1238~1438년)을 건립했으며, 14세기에는 아유타야 왕국(1350~1767년)을 건립했다. 1767년 미얀마 군의 침략으로 아유타야 왕국은 멸망하고 15년간의 단명애 그친 통부리 왕국(1767~1782년)을 거쳐 1782년 오늘날의 랏따나코싯 왕국(또는 짜끄리 왕국, 1782년~현재)이 건립되었다. 19세기 들어서 동남아 각국이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게 독립을 빼앗겼을 때 쏘라롱꾼 대령(1868~1910년) 치하의 태국은 유연한 외교정책과 근대화정책을 성공시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20세기 초인 1932년 절대군주제가 무너지고 오늘날의 입헌군주제가 도입되었다.

3. 문화적 특성

태국문화는 기층문화, 외래 아시아 문화, 서양문화와 이러한 중층적인 문화상황을 배경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국민문화로 형성되고 있다. 이 중 초기국가 형성에 크게 기여한 외래 아시아문화는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사상이었다. 불교는 고대 태국의 왕권을 정당화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또는 민중신앙의 대상으로 태국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려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생활관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태국 문화의 간격을 이루고 있는 불교는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태국의 사원수는 3만개이고 승려의 수는 30만명에 이른다. 힌두-브라만교가 태국문화에 미친 영향은 국가 상징을 비취 누신의 탈 것인 크룻(반은 새, 반은 인간의 모습)으로 삼고 있는 데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4. 축제

● **송크란(Songkran)**: 태국의 전통 설날로 최대의 명절이다. 공식적으로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이 날은 소위 물싸움 축제(Water Festival)로 유명한다 서로에게 축복



태국의 국기



태국의 국기는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되는 데 적색은 국가와 민족, 백색은 종교, 청색은 국왕을 의미한다. 이 중 종교와 국왕은 태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종교는 사실상 태국사람들의 95%가 믿고 있는 불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백색의 의미를 불교가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태국의 국기는 1917년에 만들어 졌다.

태국 기초정보

국명: 타이왕국(Kingdom of Thailand)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중앙부
면적: 513,120km² (한반도의 2.3배)
인구: 63,878,000명 (2010년)
수도: 방콕(Bangkok)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총리: 잉락 친나왓)
국왕: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언어: 타이어 (공용어)
주요민족: 타이족(85%), 화교(12%), 말레이족(2%)
종교: 불교(95%), 이슬람교, 기독교
화폐단위: 바트(Baht)

주요지역



방콕(Bangkok)
현재 태국의 수도로 정치, 외교, 산업, 문화의 중심지이다. 1782년 짜끄리 왕조 초대왕인 라마 1세에 의해 수도로 정해졌다.



치앙마이 (Chiang Mai)
태국 제2의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고유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북방의 정미'라고도 불린다. 원래 고대 랏나타이 왕국의 수도로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며 고산족들의 다채로운 모습이 생생한 곳이다.



쑤코타이와 아유타야(Sukhothai and Ayutthaya)
쑤코타이는 태국 최초로 세워진 타이족 왕국의 수도이며, 아유타야는 1767년 미얀마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417년간 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국이다.



파타야와 푸켓(Pattaya and Phuket)
파타야는 태국 동부해안의 최고 휴양지로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푸켓은 '안다만의 진주'로 불리는 곳으로 태국에서 가장 큰 섬이자 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세계적인 휴양지답게 아름다운 해안선과 고운 백사장, 석회암 절벽, 우거진 숲이 자리한다.

을 기원하는 물을 끼얹으며 즐기게 된다.

● **라이 그라통(Roi Krathong)**: 태국력으로 12월 보름에 열리는 축제다. 원래 그라통은 바나나 잎사귀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점시모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안에 양초, 선향, 꽃, 동전 등을 실어서 강물이나 운하 또는 호수로 띄워 보내면서 ('라이'는 띄워 보낸다는 의미) 소원을 빈다.

5. 음식

● **툼얌**: 신맛과 매운맛이 강한 태국의 대표적인 요리이다. '툼'은 끓인다는 의미이고 '얌'은 섞는다는 의미다. 툼얌 국물에 새우, 해산물, 닭고기 등을 넣고 끓이는 데 이 중 새우를 넣고 끓이는 툼얌 꿩은 세계 3대 요리로 선정될 만큼 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 **쌈뎀**: 파파야(말라게)로 채를 썬 것을 남쁠라, 프리키누(세상에서 가장 맵다는 작은 고추), 마늘, 라임, 소금으로 절인 민물 게나 민물 새우와 섞어 만든 샐러드다. 쌈뎀을 먹을 때는 보통 까이양(닭고기), 카우니여우(참쌀밥)와 함께 먹는다.

6. 사회

태국은 사회구조가 느슨하며 개인주의가 발달되었다. 또 상하관계가 뚜렷한 사회적 특징을 갖는다. 태국사회는 국왕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에 복종하는 습성이 강하며 연장자에 대한 예절을 잘 지킨다. 불교사회인 태국에서는 불교적 가치관(공덕쌓기-탐분)을 중시한다. 태국에서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은 무척 무례한 행동이다. 태국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도 무례한 행동으로 본다. 일반적인 인사법은 양 손바닥을 합장한 자세로 목례(와이)를 한다. 외국인들이 태국의 사원을 방문할 때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국왕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태국사람들과 똑같이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좋다.

7. 교육

태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다. 각 급 학교는 2학기제를 실시하는 데 1학기는 5월 하순부터 10월 중순, 2학기는 11월 초순부터 3월 하순까지다. 1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의 방학은 2개월(장기방학)이며 이 시기는 태국에서 가장 더운 계절에 해당한다. 태국 학생들은 필히 교복을 착용한다. 교복은 일년 내내 하복으로 대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한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태국에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여개 대학에 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데 이 중 전공과목으로 한국어가 개설된 대학은 모두 7 곳-송클라 나카린 대학, 부라파 대학, 실라빠꾼 대학, 씨나카린위룻 대학, 마하싸라캄 대학, 나레수원 대학, 라차팻 치앙마이 대학-이다. 또 최근에는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8. 경제

수출지향경제의 개발도상국인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1996년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비롯한 민간투자의 증가와 수출 지향적 공업 정책으로 평균 9%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1997년 IMF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 정치와 경제개혁을 추진한 이래 1999년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0년 7.8%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14개 부문(서비스, 전자전기, 식품, 섬유, 물류 창고, 가구, 자동차, 요업, 신발가죽, 고무 등)의 전략화 추진을 통해 ASEAN의 허브가 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VIETNAM

저항정신과 독립심이 강한 나라,

베트남



신짚오?
“안녕하세요?”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베트남은 사회 전반에 걸쳐 유교와 불교 사상을 토대로 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이다. 예로부터 중국, 인도, 프랑스 등 선진문화의 유입 속에서 베트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실용적 습합사상(習合思想: 우수한 것이면 배우고 받아들이는 사상)이 발달하였다. 도이 머이(Doi Moi, 쇄신) 경제 개방 정책 실시 이후 경제 발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베트남은 관광산업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우리나라와의 관계

구월남과는 1956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이후 1992년에 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2009년 5월에는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양국관계의 양적, 질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수교 이후 교역량은 약 20배, 투자는 약 1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체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고 약 40만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을 우리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다. 또한 전통 예술 공연, 한국영화제를 비롯하여 국제태권도대회 등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경제 사회개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무상원조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연간 교역액은 130억불(2010년)에 달하며 한국은 베트남에 광물성 원료, 직물, 철강제품 등을 수출하고(97억불) 광물성 원료, 수산물, 섬유제품 등을 수입한다(33억불).

2. 역사

BC 200년경 남 비엠티(Nam Viet, 남월)이라는 독립왕국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13세기에 3차례의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1407년에 중국에게 정복되었지만 1428년 저항운동으로 중국인들을 몰아냈다. 그 후 1802년에 응우옌 폭 아인(Nguyen Phuc Anh)에 의해 통일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으나 1945년 독립을 선언하였고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제1차 베트남 전쟁(베트남에서는 항불전쟁이라고 한다.)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1954년 베트남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제2차 베트남 전쟁(베트남에서는 항미전쟁이라고 한다.)을 겪고 난 후 1976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합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은 경제개혁을 감행하였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온 몸으로 겪고 그것을 이겨낸 강인한 국민정신을 지닌 민족이다. 베트남은 170여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220여개 이상의 국가와 무역을 하는 실리위주의 적극적이며 능동적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1995년에 ASEAN에 가입하였다.

3. 문화적 특성

베트남의 전통가극과 수상인형극이 유명하다. 14세기 편왕조 시대의 핫 보이(Hat Boi) 또는 투옹(Tuong)이라고도 불리는 전통가극은 극중 내내 노래와 무용, 악기연주가 이뤄지는 것으로 베트남의 전통 가무와 중국의 가극이 결합된 무대예술이다. 현재 희극, 비극, 풍자극 등 600여 편이 전해지고 있다. 수상 인형극은 배우들이 물속에서 인형을 조종하며 공연하는 것으로 베트남 농민들의 정서와 혼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베트남에는 음료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더운 날씨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음료수로 수분을 보충한다. 그래서 카페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세계 제 2위의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의 품질 좋은 커피뿐만 아니라 느억 짜(Nuoc cha, 베트남 전통차)를 넣고 끓인 물, 느억 즈어(Nuoc rua)라 불리는 코코넛, 레몬주스, 오렌지주스를 주로 마신다.

4. 축제

- **땃 응우옌 단(Tet Nguyen Dan):** 베트남 최대의 명절이다. 우리나라의 음력설과 같은 것으로 이 날에는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가족 간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 **땃 쑹 응우옌(Tet Trung Nguyen):** 음력 7월 15일로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위령제가 열린다. 이 날은 죽



베트남 국기



1976년 베트남 통일 때 국기로 제정되었다. 배경의 붉은 색은 혁명의 피와 조국의 정신을 의미하며 금색별의 다섯 모서리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군인의 단결을 상징한다.

베트남 기초정보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동부 지역
면적: 331,212km² (한반도의 약 1.5배)
인구: 88,257,000명 (2010년)
수도: 하노이(Hanoi)
정부형태: 공산당 1당제
국가원수: 응우옌 민 쩌엣(Nguyen Minh Triet) 국가주석
언어: 베트남어 (공용어)
주요민족: 베트남족(89%)의 54개 소수민족
종교: 불교(12%), 가톨릭(7%)
화폐단위: 베트남 동(Dong)

주요지역



하노이(Hanoi)

수천 년간의 역사적인 풍광에도 불구하고 구시가지와 600개 이상의 탑과 사원 등 많은 문화유산들이 보존되어 있다. 1049년에 세워진 일주사, 1070년 건립된 문묘, 하노이 요새, 호치민 묘소 등이 있다. 은공예를 비롯한 칠기와 수예 등 다양한 전통공예가 발달되어 있다.



호치민(Ho Chi Min)

베트남 제 2의 도시로 상업, 과학, 기술, 공업 등의 중심지이다. 특히 최근의 개방정책으로 다른 도시보다 활기가 넘쳐나는 곳이다. 남쪽과 북쪽은 운하로, 동쪽은 사이공(Saigon)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름답고 외적을 방어하기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하롱베이(Halong Bay)

삼천여개의 섬과 에메랄드 빛 바다를 자랑하는 하롱베이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명승지로 경관이 매우 수려하며 바다와 자연이 빚어낸 석회암 섬들의 모습은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후에(Hue)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수도로 1802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50여 년 동안 역사의 영화와 몰락을 고스란히 경험한 도시다. 거대한 규모의 왕궁과 도시 곳곳에 있는 응우옌 왕조 황제들의 무덤은 베트남의 살아 있는 역사를 보여준다.

은 가족의 무덤을 찾아 그를 회고하고 영혼을 위해 절이나 탑에 음식을 시주한다.

- **쑹 투(Trung Thu):** 음력 8월 15일로 추석이다. 용, 비행기, 보트, 잉어 모양의 등을 어린이들이 들고 제등 행사를 갖는다.

5. 음식

- **컴(Com, 밥):** 밥 위에 어떤 음식을 얹어 먹느냐에 따라 요리의 이름이 달라진다. 컴 보(Com bo)는 소고기덮밥, 컴 가(Com ga)는 닭고기덮밥이다. 컴 탐(Com tam)은 음력 8월에 수확된 햅쌀로 지은 밥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얹은 덮밥이다.
- **퍼(Pho, 국수):** 퍼보는 소고기를 얹은 쌀국수, 퍼가는 닭고기를 얹은 쌀국수이다. 숙주, 응오(Ngo, 향채) 등의 채소와 레몬이 함께 나오는데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국수를 넣어서 먹으면 된다.
- **꾸온(Cuon, 찜류):** 꾸온은 '말다'라는 뜻이다. 우리에게 월남쌈으로 알려진 '고이 꾸온(Goi cuon)'은 따뜻한 물에 적신 라이스페이퍼에 삶은 새우, 얇게 썬 돼지고기, 생 국수, 채소 등을 넣고 싸 먹는 음식이다.

6. 사회

베트남인들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지배와 독립투쟁, 프랑스, 일본, 미국의 침입을 겪었기 때문에 저항정신과 독립심이 강하다. 특히 프랑스, 미국 등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강하고 단결이 잘 된다. 또한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로상상이 발달되어 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한 편이고 웃자림은 대부분 바지를 즐겨 입는데 특별한 날,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입는다.

7. 교육

베트남의 학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되어 있고 입학기는 9월에 시작된다. 베트남의 모든 교육과정은 남녀공학이며 여고생의 경우, 베트남의 전통복장인 아오자이를 입는 것이 특이하다. 진학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편이고 호치민시, 하노이 등의 진학률은 높은 편이다. 학생 수에 비해 교육 시설이 부족하여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국민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고 대학입시 경쟁률도 치열하다. 베트남에는 국립하노이대, 호치민대, 하노이 외국어대, 다랏대학교, 다낭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등에 한국어와 및 한국학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다.

8. 경제

1979년 경제개혁 노선의 부분적 도입 후에 1980년대 이후 단계적으로 경제개혁과 개방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86년 '도이모이'(쇄신)정책 채택으로 본격적인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5개년 경제사회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며 2007년 6월에 '한-ASEAN FTA' 상품협정을 체결했다. 고도 경제성장에 이은 경기과열 현상 및 대외 경기 침체로 당분간 저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안정, 천연자원, 풍부한 인적 자원 등이 잘 활용되면 무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섬유 및 의류, 신발류, 수산물, 목제품, 컴퓨터 및 전자 부품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순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정유, 기계 부품, 철강, 섬유 및 의류원단, 화학제품, 동물사료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싱가포르, 대만 순이다. 베트남의 주요 산업은 농림업(커피-세계 2위 수출국, 후추-세계 1위 수출국), 수산업, 광업(원유, 무연탄) 등이다.

용어정리

아세안+3 APT : ASEAN Plus Three | 한-아세안 정상회의 ASEAN-ROK Summit

1997년, ASEAN은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ASEAN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을 초청하여 제1차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어서 별도의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후 지속적으로 '아세안+3회의'와 더불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사업의 영역을 경제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IT · 문화 · 청소년분야까지 넓혀나가고 있으며 아세안내 개발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례회의와는 별도로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 6월 제주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아세안 대화관계 ASEAN Dialogue Partnership | 아세안 대화상대국 ASEAN-Dialogue Partner | 한-아세안대화 ASEAN-ROK Dialogue

아세안 회원국의 역외 시장개척, 인적자원개발, 아세안 경제 발전을 위한 자본 · 기술 확보 필요성에서 아세안은 1974년 호주와 대화관계를 시작하였다. 현재 아세안 대화상대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뉴질랜드,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중국, 러시아 등 10개국(지역)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부문별 대화관계 수립에 이어 1991년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를 매년 갖고 양 지역간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아세안헌장 ASEAN Charter |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 ASEAN Economic Community

2007년 아세안은 창설 40주년을 맞아 공동체의 헌법 역할을 하게 될 '아세안헌장'과 '아세안경제공동체' 설립을 위한 청사진에 서명하였고 2008년 12월 아세안헌장이 발효됨으로써 유럽연합(EU)과 같은 강력한 지역공동체를 향한 아세안 통합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아세안헌장은 국제기구로서 아세안에 '법인체'의 지위를 부여하며 역내 경제와 통상 개방으로 2015년까지 단일시장과 단일 생산기반의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 (www.asean.org)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 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안보현안에 대한 정부간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강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자안보 협의체이다. 아세안이 연간 개최하는 외교장관회의의 틀을 활용하여 1994년 태국에서 제1차 ARF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후 2011년 7월 제 18차 ARF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아세안 10개국, 아세안 대화상대 10개국 및 기타 7개국(방글라데시, 북한, 몽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동티모르) 등 총 27개국(EU포함)으로 구성되어 남북한이 동시에 지역안보현안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제 1차 ARF회의부터 참석한 창설회원국이다.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 East Asia Summit

200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의 중 · 장기 협력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창설되었다.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차 EAS회의 개최 이후 매년 열리며 현재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였으며, 2011년 제6차 회의부터는 미국과 러시아가 신규로 가입함으로써 총 1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 Asia-Europe Meeting

아시아 · 유럽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역간 협력체제로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공동협력 사업을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다. 1996년 3월 방콕에서 아시아 10개국 (ASEAN 7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및 한국, 중국, 일본)과 유럽연합(EU) 15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모여 제1차 ASEM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후 매 2년에 한 번 개최되고 있다. 2004년 회의부터 아세안 10개국 모두 참가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서울에서 제3차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11년 현재 회원은 총 48개로 아시아, 유럽, 제3그룹(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 46개국과 EU 집행위, ASEAN 사무국 등으로 이루어진다.

라마단 Ramadan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을 뜻하는 말로 이슬람력의 9월을 가리킨다. 이슬람에서 9월은 '코란'이 내려진 신성한 달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라마단 시작일은 1년이 354일인 이슬람력의 아홉 번째 달 첫날에 시작된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 기간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하루에 3~5번 성지 메카나 메디아를 향해 기도하며 철저히 절제된 생활을 한다. (참고: 30~31쪽 아세안 음식문화)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사

HISTORY OF ASEAN-KOREA RELATIONS

아세안 음식 문화

ASEAN FOOD CULTURE

아세안과 한국의 세계유산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N ASEAN

아세안 퀴즈

QUIZ ON ASEAN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사



타이의 옛 상선

대략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들로 항해하면서 무역을 한 타이 상선.

출처: Derick Garnier, Ayutthaya: Venice of the East, Bangkok: River Books, 2004.



난 왓푸민 벽화

타이 북부의 작은 도시인 난에 있는 왓푸민 사원의 벽화. 외국 상선들도 강을 따라 올라와 장사를 했다.

출처: 조흥국 사진

고대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교류-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다

최근 아시아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남아시아의 민족들이 동북아시아의 민족들보다 아시아 지역에 먼저 터를 잡게 되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주한 결과 한반도와 일본열도 등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한반도의 민족과 문화가 남방, 특히 동남아시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입석, 석관묘, 지석묘 등은 한반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사실도 선사 시대 남방에서 우리나라로 문화가 흘러들어 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고대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는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졌다. 신라 시대 혜초를 비롯한 여러 스님들은 불교 공부를 위해 인도로 갈 때 중국에서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과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바닷길을 이용했다. 고려 시대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반도에 온 일이 있었는데 특히 13세기에 베트남의 왕족인 '리롱뜨엥'은 자신이 섬기던 베트남의 왕조가 망하자 배를 타고 황해도 웅진군의 화산이라는 곳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그는 고려의 조정에 의해 화산군에 봉해졌고 뒤에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조선 초기-태국 및 인도네시아와의 교류

고려 왕조 말기와 조선왕조 초기인 14세기 말에는 태국 왕의 사신으로 자처하는 무역 상인들이 여러 번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이에 대한 답례로 태국에 사신을 파견했지만, 이 사신은 태국 국왕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1406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신을 자와(자바) 왕국의 사신이라고 소개하는 한 무역 상인이 조선을 찾아왔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상인들은 우리나라의 무역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한반도에 온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방문 이야기는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과 태국 및 자와(자바)섬 간의 무역 관계는 번번이 선박을 습격하여 화물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한 왜구의 위협과 해외무역에 대한 조선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계속 발전되지는 못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태국은 중국의 명 정부에게 일본을 배후에서 공격하여 조선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태국이 장거리 항해와 대규모 병력의 동원이 요구되는 일본 원정을 실제로 수행할 능력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태국이 그러한 제안을 한 것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활발히 무역을 하고 있던 태국이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무역적인 이해관계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중기-베트남과의 활발한 교류

17세기에는 조선과 베트남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 정유재란 때 경상도 진주에 살던 '조완벽'이란 선비는 일본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일본 상인을 따라 1604년부터 1606년까지 베트남을 세 번 방문했다. 그가 베트남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것은 <조완벽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당시 베트남의 사대부들 중에 조선을 예의 있는 나라로 칭송하며 조선 시대 유명한 문인이자 관료인 이수광의 시를 애송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1687년에는 제주도 주민 24명이 표류하여 중부 베트남의 호이안까지 간 일이 있었는데, 이들 중 세 명은 베트남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찬 물을 얻어 마시고 죽었다고 전해진다. 물을 끓여 마셔 목숨을 부지한 나머지 사람들은 베트남 정부의 자상한 배려로 그 이듬해에 고향에 무사히 돌아왔다고 한다.



보로부두르 정크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보로부두르 사원의 부조에 새겨져 있는 정크선. 자바섬이 오래 전부터 대외무역을 활발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조흥국 사진



호이안 항구의 상선

베트남 중부의 호이안 항구에 있는 한 중국사원에 걸려 있는 그림. 해외무역으로 활기찬 항구의 모습을 보여준다.

출처: 조흥국 사진

조선왕조 시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에서 베트남과의 교류가 가장 많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베트남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반도에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외에도 중국과 조공 관계에 놓여 있던 양국이 중국에서 서로 접촉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공 관계의 배경에서 두 나라의 사신들은 15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중국의 수도에서 만나 서로 시문을 주고받았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 그들은 한편으로는 사적인 교분을 쌓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나마 상대방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두 나라의 사신들이 서로 빈번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유교적 전통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한 그들이 서로를 자신의 문화적 품위와 자국의 국가적 품격에 손색이 없는 파트너로 인정하여 서로 교류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귀기 위해 애썼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양국의 사신들 간에는 모종의 동지에 내지는 우정이 있었으며, 그러한 만남을 통해 조선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19세기까지 연연히 이어졌다.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 20세기 한국-동남아 교류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는 사실 19세기까지는 대부분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중국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또 지속적이라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에 비해 20세기에는 양자 간의 교류가 훨씬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그 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면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한국인들의 동남아시아 방문이 일어났으나,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강제징집하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의 전선에 내보내고, 또 한국 여성들을 미안마 등에 주둔하는 일본군의 위안부로 동원함으로써 이루어진 비극적인 역사 속의 교류였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때 태국은 우리나라에 육군 보병 약 1,300명과 해군 프리깃함 7척 그리고 공군 수송기 1개 편대를 파병했다. 필리핀은 약 1,500명의 육군을 파병했다. 태국군은 136명이 전사하고 469명이 부상했으며, 필리핀은 112명 전사와 356명 부상(실종 57명 포함)을 기록했다.

한국과 아세안, 친구가 되다

20세기 후반부터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상호 건설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1949년 필리핀을 필두로 1958년 태국, 1960년 말레이시아, 1973년 인도네시아, 1975년 싱가포르 등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오늘날 아세안의 모든 나라들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무역에서도 긴밀하고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는 최근 인적 교류도 크게 늘고 있다. 매년 동남아시아로 가는 우리의 관광객 수는 수백 만 명에 이른다. 유학, 직업 또는 결혼 등으로 한국에 유입되는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한류의 확산에 따라 드라마와 영화, 가요, 패션 스타일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세안의 모든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 대상 지역 중 하나가 아세안이다. 중국과 일본 등 아세안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동남아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 최근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관계 또한 더욱 친밀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면 이제는 아세안을 알고 이해하며, 아세안 사람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아세안 음식 문화



식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 되는 음식 템페(Tempe)



라마단 예배가 끝나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남자들 (2010년 8월)



각종 야채와 허브를 파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 (2005년 8월)



무슬림을 위해 설치된 메카의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 (싱가포르공항, 2003년 2월)

외국 문화의 영향으로 더욱 다채로운 아세안 음식

동남아는 전반적으로 적도 부근에 위치하여 열대 기후를 보이며, 주식(food staple)은 쌀과 생선이다. 동남아 지역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 음식에서도 토착 음식 문화 외에 인도·중국·아랍 문화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식민시대를 거치며 유럽의 음식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더욱 다채로운 음식 문화를 형성하였다. 특히 17-18세기경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서부 동남아시아에 유럽 세력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식민 모국인 스페인과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부터 새로운 농작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럽의 음식 문화가 유입되었다. 유럽 식민화 과정에서 필리핀에는 전통 디저트를 포함한 스페인의 Fiesta 음식이 들어왔고, 브루나이 왕국의 술탄도 스페인 음식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말레이 반도의 무역 중심지 말라카 지역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영향을 차례로 받았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다양한 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2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동서부 동남아 지역의 대국, 인도네시아는 음식 문화만 보아도 하나의 민족국가로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상이하다. 한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를 비롯한 대륙부 동남아 지역에서도 프랑스 및 유럽 열강의 음식 문화가 유입되었는데, 베트남의 바게트 샌드위치, 태국음식에 들어가는 매운 고추 등은 모두 유럽 음식 문화의 유산을 반영한다.

동남아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 코드, 무슬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주요 종족인 말레이는 전 세계 무슬림의 약 20%를 차지할 정

도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말레이 무슬림이 주로 분포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남부 지역,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는 뾰족한 첨탑의 모스크와 함께 무슬림 음식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도시나 지역 사회의 중심부에는 달 모양의 상징이 달린 둥근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하루에 5번씩 코란을 읽는 소리가 들려온다. 모스크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하고 여성의 경우 신체를 노출하는 복장을 입어서는 안 된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숙박업소에 가면 천정의 화살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고급 호텔이든 허름한 여관이든 메카의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에 맞추어 기도를 올린다. 가정에서도 아랍어로 된 코란이나 계율의 일부를 적어 놓은 벽걸이 액자를 걸어 신앙심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어떤 계율보다 무슬림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음식 문화이다. 무슬림들은 반드시 '할랄(Halal)' 음식만을 먹어야 하고, 1년에 한번씩 있는 금식 기간인 '라마단(Ramadan)'을 지켜야 한다.

현재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교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슬람법에 의해 허락된 음식인 '할랄(Halal)' 음식과 시체, 피, 돼지고기,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동물인 '하람(Haram)' 음식은 엄격히 구분되며, 모든 도살장이 정부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무슬림에게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인 돼지는 황소, 양, 물소와는 다른 장소에서 도살된다. 인도네시아 전역의 패스트 푸드점에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프라이드치킨이나 치킨버거를 판매한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 일상 음식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템페(Tempe)이다. 이탈리아의 피자나 미국의 햄버거처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음

식이다. 전반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인도네시아 식단에서 식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콩을 발효시켜 만들었으며 자바에서 기원하였다. 최근에는 템페도 개발되었으나 별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맥도널드와 KFC 매장도 ‘할랄(Halal)’ 인증 음식 판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서구의 패스트푸드가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비만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 도시의 빈민가나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빈부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한편, 코카콜라에 맞서기 위해 등장한 이슬람계 “메카 콜라”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무슬림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최근의 반미 감정이 메카 콜라의 인기 상승에 기여하는 가운데 순수 이익의 10%를 팔레스타인 빈민들을 위해 기부하고 또 다른 10%는 해당 영업 지역 자선단체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통해 무슬림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무슬림의 금기는 항공기 내부와 같은 국제적인 공간에서도 적용된다. 아랍계 항공을 이용하면, 술이나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을 때 진정한 무슬림으로 인정받는다. 독실한 무슬림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할랄 음식(Halal Food)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한다. 맥도널드 매장이나 심지어는 중국계 식당에서도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지판과 함께 할랄(Halal) 인증 마크를 붙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할랄(Halal) 논쟁을 피하기 위해 쇠고기 햄버거를 주 메뉴로 하는 맥도널드보다는 KFC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이 더 널리 퍼져있

으며, 기존 햄버거 매장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무슬림 지역에서는 치킨 버거와 프라이드치킨을 주로 판매한다.

이들 지역에서 ‘Kampung Fried Chicken’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보듯, KFC는 말레이의 농촌인 ‘캄퐁(Kampung)’의 정취와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거의 토착화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고기를 양념한 후 숯불에 굽는 동남아 무슬림 전통 음식 “사떼(Satay)”도 소고기가 아닌 주로 양고기, 치킨을 이용한 사떼가 대부분이다. 제과점도 서구화된 제과점보다는 ‘Bergawan Solo’ 같은 말레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과자나 빵을 굽는 베이커리에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절대로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판매되는 케이크와 빵은 무슬림 공동체에서 인기가 높다. 또 라마단 기간에는 낮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계율로 인해 거리가 한적하지만,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무슬림의 생활공간에 활기가 넘친다. 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개발한 라마단 뷔페를 비롯하여 낮 동안의 금식을 보상하고도 남은 다양한 음식 행사가 펼쳐지는 라마단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축제가 된다.

세계인의 고급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태국·베트남 음식

태국과 베트남은 비옥한 평야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쌀과 채소, 강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생선 및 패류를 활용한 음식이 발달하였다.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보다는 다양한 채식 문화가 발달하여, 서구인에게는 고급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기름과 육류를 많이 쓰는 느끼한 중국 음식과는 달리 다양한 향료와 허브로 재료의 담백한 맛을 살리는 태국 및 베트남 음식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베트남 음식점이 급격히 늘어나고 쌀국수와 월남쌈 등이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태국 음식점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다.

미주와 유럽 전역에서 베트남 쌀국수인 ‘퍼(Pho)’와 함께 태국의 볶음 국수, ‘팟타이(Phat Thai)’와 코코넛을 넣은 부드러운 ‘그린 커리(Green Curry)’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동남아 식재료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태국 여성의 결혼 이주가 많은 영국에서는 전통적인 대중음식점인 펍(pub)에서까지 태국 음식을 주 메뉴로 내놓을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 세계 도시 런던의 시내 중심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급 음식점은 단연 태국 레스토랑이고 다양한 메뉴와 함께 세련된 실내 장식으로 현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태국 정부는 태국 음식과 음식점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을 통해 세련된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태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KFC 매장. 매콤한 칠리소스가 함께 제공되고 무슬림에게 할랄푸드(Halal Food)임을 강조하는 광고도 함께 제시된다. (2003년 8월)




할랄(Halal) 인증 표시를 내건 말레이시아의 음식점 (2010년 7월)

아세안과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1972년,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기 위하여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제정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의 3가지로 구분된다. 세계유산은 전 세계 153개국의 936건(2011년 7월)이 등재되어 있다. 세계협약가입국은 187개국이며 이중 아세안은 7개국 31건, 한국은 10건을 보유하고 있다.

 **캄보디아** CAMBODIA
총 2건 • 협약 가입일: 1983년 5월 24일

앙코르 Angkor

• **문화유산**, 1992년 지정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고고 유적지 중의 하나이다. 산림지역을 포함한 면적이 약 400km²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앙코르는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크메르제국의 수도였으며 앙코르와트를 비롯한 바이온 사원 등이 남아있다. 전 세계적인 보존 노력과 더불어 유네스코에서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프레아비hear 사원 Temple of Preah Vihear

• **문화유산**, 2008년 지정

11~12세기에 건축된 시바의 신을 모시는 힌두교 사원이다. 사원은 라테라이트와 사암으로 만들어져 있고 2,8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캄보디아 평원이 내려다보이는 당력 산맥 정상에 525m 절벽 위에 있어서 유적이 부분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INDONESIA
총 7건 • 협약 가입일: 1980년 12월 22일

보로부두르 사원 Borobudur Temple Compounds

• **자연유산**, 1991년 지정




족자카르타 마글랑(Magelang)에 위치한 보로부두르 사원은 미얀마의 바간 사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 중 하나로 마하야나(Mahayana)불교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다. 약 9세기 초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만개의 돌로 쌓아 만들어진 거대한 대칭형 불탑으로 석조물의 무게는 350만 톤에 달한다. 불교의 쇠퇴 및 자바인들의 이슬람 귀의 등에 따라 천 년 동안 열대의 수풀 속에 버려졌다가 자바 섬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인 1814

년 다시 발견되었다. 이후 1973년 유네스코 주도하에 대규모의 보존, 보수 등 다양한 복원작업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었다. 보로부두르란 산스크리트어로 언덕위의 승방이란 뜻.

산기란 초기 인류 유적지 Sangiran Early Man Site

• **문화유산**, 1996년 지정

자바섬의 중부 솔로강 유역에 있는 화석유적지이다. 1934년 독일의 인류학자 괴니히스발트(Gustav Heinrich Ralph von Koenigswald)가 이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한 이래 현생인류의 최초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을 발견하였다. 이후 60여개 이상의 인류 화석을 발굴하였으며 원시시대 유적 등을 발견하였다. 인류 진화 과정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라오스** LAO PDR
총 2건 • 협약 가입일: 1995년 1월 10일

루앙프라방 시 Town of Luang Prabang

• **문화유산**, 1995년 지정



동남아시아의 전통 건축과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라오스 북서부 지역 메콩강 유역에 위치하며 루앙프라방의 문화유적 중에 가장 매력적인 곳은 오래된 시가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수십 개의 불교 사찰들이다. 루앙프라방은 큰 불상이라는 뜻.

참파삭 문화지역 내 왓푸 사원과 고대 주거지

Wat Phou & Associated Ancient Settlements within the Champasak Cultural Landscape

• **문화유산**, 2001년 지정

라오스 남부 크메르 왕조 때의 사원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힌두교의 믿음을 반영하도록 계획된 곳이다. 5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역사를 아우르는 곳인데 17세기에 지진이 일어나 사원이 많이 파괴되었다. 산 정상에서 강변으로 이어지는 축을 이용하여 절 상당, 분수를 10km가 넘는 지면에 건축했다. 왓푸는 산에 있는 절이라는 뜻이다.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태국
- 베트남
- 한국

말레이시아 MALAYSIA

총 3건 • 협약 가입일: 1988년 12월 7일

키나발루 공원 Kinabalu Park

• 자연유산, 2000년 지정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키나발루산(4101m)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으로 보르네오섬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15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산으로 다양한 생물상과 높은 풍토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개화식물군의 절반 이상의 대표성을 획득한 자연유산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을 자랑한다.

구능물루 공원 The Gunung Mulu National Park

• 자연유산, 2000년 지정

석회암 동굴을 비롯한 카르스트 지형의 생태 변화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17가지 열대식물지역 및 3500 종류의 관엽 식물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구능물루에는 20여개의 석회암 동굴이 있으며 수백만 마리 박쥐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장엄한 석회암 봉우리, 깊은 협곡과 넓은 강, 열대림과 습지대, 동굴 등의 다양한 모습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필리핀 PHILIPPINES

총 5건 • 협약 가입일: 1979년 1월 16일

필리핀 바로크 양식 교회 Baroque Churches of the Philippines

• 문화유산, 1993년 지정

필리핀의 마닐라, 산타마리아 파오아이, 미아그아오에 위치한 4개의 바로크 풍의 교회이며 16세기 말 스페인 선교사들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중국과 필리핀 공예가들에 의해 재해석된 유럽 바로크 스타일의 융합을 보여주고 있다.

필리핀의 계단식 벼 경작지, 코르디레라스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s Cordilleras

• 문화유산, 1995년 지정



루손섬 해발 1000~1500m 고지에 형성된 대규모 계단식 논이다. 2000년 전부터 코르디레라스 산맥의 가파른 경사지를 깎아 논을 만

들고 벼농사를 지어왔다. 논둑을 이을 경우 그 길이가 2만km가 넘는다. 계단식 경작지는 단순한 농경지의 역할을 뛰어넘어 흙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식과 신성한 전통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전승되었으며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로움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태국 THAILAND

총 5건 • 협약 가입일: 1976년 7월 23일

쑤코타이 역사도시 Historic Town of Sukothai

• 문화유산, 1991년 지정

13세기부터 14세기에 시암 왕국의 첫 번째 수도였다.



태국건축의 시초를 알려주는 수많은 유명 기념물 즉 직사각형의 성벽, 왕궁과 불교 사원, 승방, 인공호수, 제방 등이 남아 있으며 불교 관련 유적들이 많다.

아유타야 역사도시 Historic city of Ayutthaya

• 문화유산, 1991년 지정



1350년에 건설된 쑤코타이에 이은 시암 왕국의 두 번째 수도이다. 1767년 미얀마의 침입으로 도시가 파괴될 때까지 417

년 동안 번성했던 곳이다. 일부 현존하는 사리탑과 거대한 수도원, 왕궁과 요새 등은 과거의 화려했던 영화를 전해준다. 왕궁 안에 세워진 사원으로 아유타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원은 왓프라시산펏이다. 역대 왕의 유골을 안치한 탑 3개가 남아 있는데 15세기 말에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VIETNAM

총 7건 • 협약 가입일: 1990년 11월 6일

하롱 만 Ha Long Bay

• 자연유산, 1994년 등재, 2000년 확장



통킹 만에 위치해 있으며, 크고 작은 3000여개의 기암괴석과 섬들이 있다. 광대한 석회암 지역으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빛이 변하며 장엄한 바다 풍광을 연출한다. 험준한 자연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섬들이 무인도로 남아 있고 인간에 의해 영향 받지 않은 천연지역이지만 약 7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후에 기념물 집중지대 Complex of Hue Monuments

• 문화유산, 1993년 지정

1802년 통일 베트남의 수도로 건설되어 1945년까지 응우옌(Nguyen)왕조 치하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중심지였다. 독특한 봉건시대 수도로 아름다운 자연미를 자랑한다. 응우옌 왕조의 13대에 걸친 황제들이 잠든 황릉과 사원이 유명하며 건축 양식은 중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으나 통일된 양식보다는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 KOREA

총 10건 • 협약 가입일: 2006년 6월 3일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지정된 석굴암과 불국사(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1997년 지정된 창덕궁(Changdeokgung Palace Complex)을 비롯해 2009년에는 40기의 조선 왕릉이 한꺼번에 지정되었고 2010년 7월 31일,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를 새로 지정되는 등 한국에는 총 10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아세안 퀴즈

1. 다음 중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곳은?

- a. 브루나이 b. 라오스 c. 동티모르

(정답 c. 동티모르는 2002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아세안에 참석하나 아세안 회원국은 아님. 현재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아세안이 경제공동체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는 언제일까요?

- a. 2013년 b. 2015년 c. 2020년

(정답 b. 아세안은 2015년까지 단일시장과 생산기반을 통한 경제공동체구축을 목표로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3. 다음 중 국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 a. 태국 b. 브루나이 c. 인도네시아

(정답 c.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임. 태국은 현재 라마 9세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브루나이는 현재 하사날 볼키아 국왕이 통치하는 입헌군주국가이며, 그 외에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역시 입헌군주국가임.)

4. 다음 중 브루나이의 최대 수출품목은 무엇일까요?

- a. 석유 및 천연가스 b. 목재 c. 의류

(정답 a. 브루나이는 연 7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로 매년 6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5. 세계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며 캄보디아 국기에도 나타나 있는 앙코르와트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나요?

- a. 프놈펜 b. 바탐방 c. 시엠립

(정답 c. 캄보디아 북서쪽의 시엠립에는 앙코르와트 이외에도 1,000개 이상의 유적들이 앙코르 유적군을 이루고 있음.)

6. 인도네시아에는 섬이 총 몇 개가 있나요?

- a. 100개 이상 b. 1,000개 이상 c. 10,000개 이상

(정답 c. 인도네시아는 약 17,000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로 전체 면적만 해도 190만㎢로 한반도의 9배가 됨.)

7. 다음 중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 a. 베트남 b. 필리핀 c. 인도네시아

(정답 c. 아세안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음.)

8.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내륙국입니다. 라오스와 접경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 a.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b.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c. 태국, 미얀마, 브루나이, 필리핀

(정답 a. 라오스는 동쪽으로는 베트남, 서쪽으로는 태국, 남쪽으로는 캄보디아, 북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9.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계명을 지킨 것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열리는 이 축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a. 하리 라야 아이딜 피트리 b. 송끄란 c. 분탓루앙

(정답 a. 대부분 이슬람을 믿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최대 명절로 브루나이, 싱가포르에서도 축제로 기념함.)

10. 9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군도이며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된 말레이시아의 지역은 다음 중 어디인가요?

- a. 페낭 b. 쿠알라룸푸르 c. 랑카위

(정답 c. 석회암 지대의 동굴, 빙하기의 종유석 등 자연환경으로 2007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음.)

11. 다음 중 미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a. 미얀마 사람들은 내세의 삶을 위해 공덕을 쌓는 일, 특히 파고다를 건축하는 종교적 행위에 중점을 둔다
b. 아시아 국가가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다 c.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여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정답 c. 도이모이(쇄신)는 베트남의 경제 개방 정책임.)

12. 다음 중 필리핀 기술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 세워진 건축물을 고르시오.

- a. 주한프랑스대사관 b. 주한미국대사관 c. 서울시립미술관

(정답 b. 광화문의 주한미국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건물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 역시 필리핀 엔지니어의 도움으로 1963년 지어졌음.)

13. 다음 중 한국전 당시 파병했던 아세안 국가는 어디일까요?

- a. 브루나이 b. 라오스 c. 필리핀

(정답 c. 필리핀은 한국전 당시 우리나라에 7,148명을 파병하여 철의 삼각지대에서 중공군 부대를 격퇴한 우방국으로 지난 60여년간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

14. 다음 중 싱가포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국가 전체가 하나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이다 b. 영어를 필수언어로 하여 2개 언어를 이수해야하는 2종 언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c. 이슬람 사원인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가 유명하다

(정답 c.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는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세리베가완에 위치함.)

15. 태국 제2의 도시로 ‘북방의 장미’ 라고 불리는 관광지는 어디인가요?

- a. 하룽베이 b. 치앙마이 c. 보라카이

(정답 b. 치앙마이는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 이은 제2의 도시이며 과거 란나 왕국의 수도이기도 함.)

16. 다음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베트남의 명승지는 어디일까요?

- a. 문묘 b. 하룽베이 c. 사이공 강

(정답 b. 삼천여개의 섬과 에메랄드 빛 바다를 자랑하는 하룽베이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외에도 베트남에는 후에 기념물 집중지대(1993, 문화), 성자 신전(1999, 문화), 호이안 고대도시(1999, 문화), 풍 나케방 국립공원(2004, 자연), 하노이 탕롱 황성의 중앙부(2010, 문화) 총 6개의 세계유산이 있음.)

한-아세안센터



한-아세안센터 창립식(2009년 3월)



아세안홀



아세안홀 입구

한-아세안센터 설립 ESTABLISHMENT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수
립 20주년을 맞은 지난 2009년 3월, 한국과 동
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10개 회원
국 간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
구이다.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1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
세안회원국 정부는 ‘한-아세안센터설립 양해
각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아
세안회원국 등 11개 전 회원국이 비준 동의를
마치고 2008년 12월, 동 양해각서의 발효와 함
께 한-아세안센터가 설립됨으로써 한국과 아
세안간 협력을 제도화한 새로운 협력관계의 장
을 열게 되었다.

한-아세안센터의 임무 MANDATES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교역규모 증대, 투자 촉진, 관광 활성화 및 문화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인적 교류를 통한 양 지역 국민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한-아세안센터 회원국 MEMBERSHIP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아세안센터 사무국 Secretariat

한-아세안센터는 서울 프레스센터빌딩 내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총장 이하 개발기획총무부, 무역투자부, 문화관광부, 정보자료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한-아세안센터 '아세안홀' ASEAN HALL

한-아세안센터는 아세안 회원국과 우리 국민들 간의 상호 문화교류와 이해증진을 위하여 센터 사무국내 다목적 공간으로 아세안홀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세안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및 관광을 소개하는 세미나, 강좌, 워크숍,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아세안홀 내에 아세안 회원국과 한-아세안관계에 대한 도서와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갖춘 '정보자료코너'를 통하여 일반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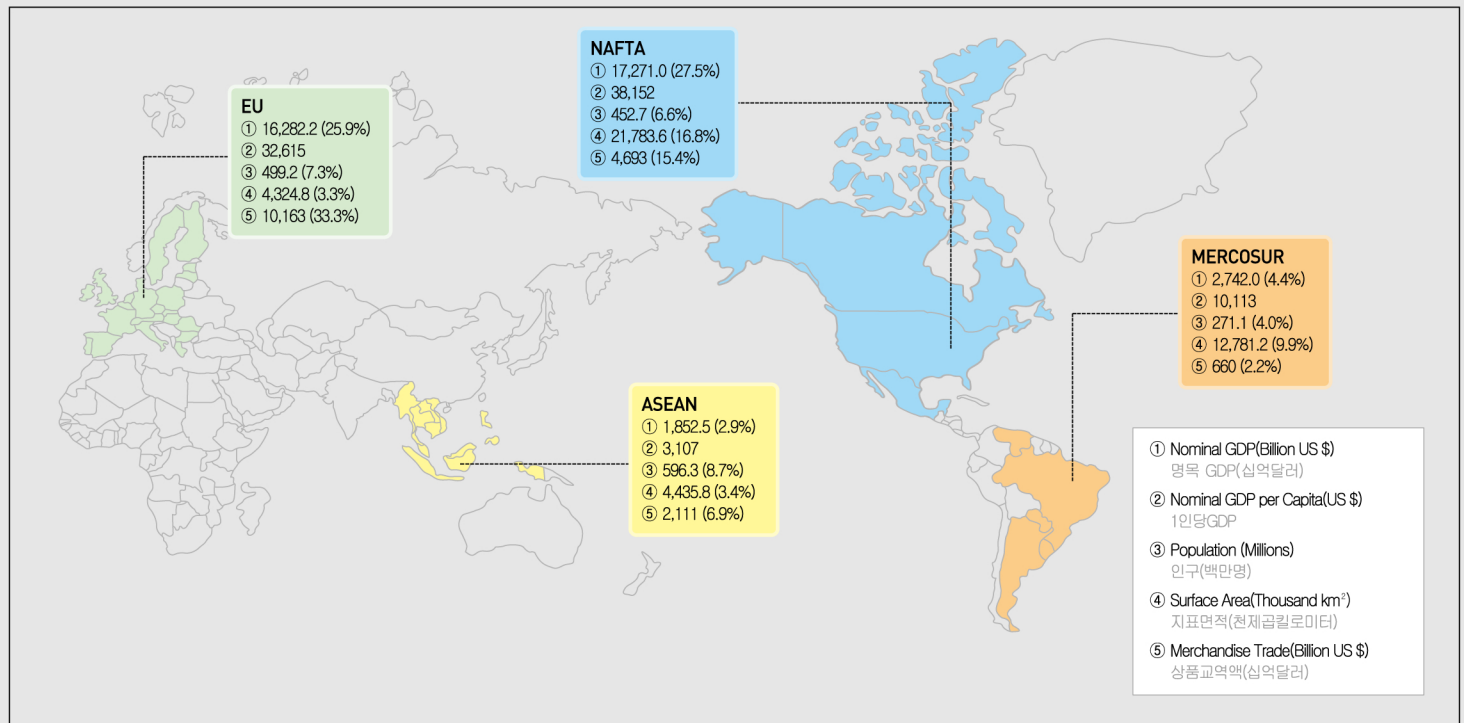
한-아세안센터 찾아오는 길



지하철 ①호선, ②호선 시청역 4번 출구
⑤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도보 2~3분 거리 도착.

■ 서울시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8층

아세안과 타경제권 ASEAN and Other Economic Blocs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 • 주: 1) ()안의 퍼센트는 전 세계에서의 비중 2) 전 세계 1인당 명목 GDP는 평균 9,227달러(2010)

- EU (유럽연합, European Union, 27개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1993년 창립
-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3개 회원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1994년 발효
-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10개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967년 설립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un del Sur, 5개 회원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1991년 설립